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 책임연구원 : 이기봉(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권순용(서울대학교 교수)
박일혁(서울대학교 교수)
- ▶ 보조연구원 : 김양혁(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음.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이론적 검토)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의 다양한 효과, 체육활동 참여 실태,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의 의미 및 중요성을 고찰함.
- (설문조사)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 수준 및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 (심층면접조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체육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사항을 파악함.

3. 주요결과

1)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 전반적으로 저소득층과 일반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가시간에서 평일 하루 평균 15분 정도 저소득층이 일반

학생들보다 많아 운동시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여가시간 중 게임시간은 저소득층이 하루 평균 18분 정도 많은 반면, 공부시간은 저소득층이 일반학생보다 하루 평균 15분 정도 적게 나타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모의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서울시에서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학생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저소득층이 일반 학생들보다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반학생들은 저소득층보다 부모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에 대한 결과를 보면 환경적 요인들은 내재적 요인에 비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사료됨.
-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은 성별에 따라 확연히 다른 선호도를 보여 성별에 따른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심층면접조사 결과

-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체육활동 참여도와 관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부모의 체육활동 참여도와 관심도가 저조한 점이 상당부분 제약요인으로 기여하는데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절대적 여가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한 부담과 압박으로 채워져 있어 자녀의 교육, 여가 및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에도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체육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부모나 또래 친구)가 부재한 점도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나타남.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나 동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나 TV보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가 부재한 점 또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나타남. 특히 종목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체육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또한 저조한 데 그 두드러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수련관 및 복지관에서도 체육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체육활동의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바우처 제도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제공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은 체육활동 참여라는 기본적 권리가 지원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참여 경험 또한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남.

4. 정책제언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역사회 체육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물적, 인적, 문화적)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체육자원을 파악하고 그러한 자원의 네트워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함.

○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스포츠바우처 시설 유형의 다양화, 아동 및 청소년 성별 활용도 제고, 지역적 편중 개선,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재 스포츠바우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홍보매체 및 채널을(예를 들어 학교, 인터넷, 지자체 기관 등) 통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학생들보다는 직접 사업신청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홍보 전략이 중요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체육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공공 또는 민간 체육시설 장소, 요금안내, 예약 서비스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자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관리, 자원연계 등의 역할을 해주는 멘토나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체육활동 참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또한 저조하기 때문에 체육의 중요성과 체육활동 참여의 즐거움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지역사회 복지관 또는 청소년 수련관의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전국의 수련관 및 복지관의 체육프로그램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기반하여 활용도 높은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그를 담당하는 지도인력의 육성 및 배치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9
1.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 효과 및 중요성	9
2. 아동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현황	12
3.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23
제3장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33
1. 설문조사 개요	33
2. 설문조사 결과	36
제4장 심층면접 결과	75
1. 심층면접 개요	75
2. 심층면접 결과	78
제5장 결과요약 및 정책제언	89
1. 결과요약	89
2. 정책제언	92
참 고 문 헌	99
부록(설문지)	105

표 목 차

〈표 II-1〉 체육 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정도(단위: %)	13
〈표 II-2〉 체육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단위: %)	14
〈표 II-3〉 체육 활동 1회 평균 참여 시간(단위: %)	15
〈표 II-4〉 체육 동호인 조직 가입 제한 이유(단위: %)	15
〈표 II-5〉 체육활동 참여종목(단위: %)	16
〈표 II-6〉 체육활동 참여 횟수(단위: %)	16
〈표 II-7〉 체육활동 참여 장소(단위: %)	17
〈표 II-8〉 체육활동 제한 이유(단위: %)	18
〈표 II-9〉 체육활동 지도자 지도 경험 유무(단위: %)	18
〈표 II-10〉 체육활동 지도자 만족도(단위: %)	19
〈표 II-11〉 체육활동 희망 운동 종목(단위: %)	19
〈표 II-12〉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단위: %)	20
〈표 II-13〉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	21
〈표 II-14〉 전국 청소년 수련관 현황	26
〈표 II-15〉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현황	28
〈표 III-1〉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33
〈표 III-2〉 설문지 내용	34
〈표 III-3〉 하루 중 여가시간(단위: 분)	37
〈표 III-4〉 유형별 여가시간(단위: 분)	39
〈표 III-5〉 집주변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정도(단위: %)	40
〈표 III-6〉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단위: %)	41
〈표 III-7〉 참여 체육활동 종목(중복응답, 단위: %)	42
〈표 III-8〉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 시간(단위: %)	43
〈표 III-9〉 체육활동 참여 기간(단위: %)	44
〈표 III-10〉 체육활동 강도(단위: %)	45

〈표 Ⅲ-11〉 체육활동 참여 요일(중복 응답, 단위: %)	46
〈표 Ⅲ-12〉 체육활동 참여 시간대(단위: %)	47
〈표 Ⅲ-13〉 체육활동 참여 이유(중복응답, 단위: %)	48
〈표 Ⅲ-14〉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중복응답, 단위: %)	49
〈표 Ⅲ-15〉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단위: %)	50
〈표 Ⅲ-16〉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단위: %)	51
〈표 Ⅲ-17〉 향후 참여 희망 운동 종목(중복응답, 단위: %)	52
〈표 Ⅲ-18〉 최근 1년간 운동경기 직접 관람 횟수(단위: %)	53
〈표 Ⅲ-19〉 운동경기 직접 관람 종목(중복응답, 단위: %)	54
〈표 Ⅲ-20〉 운동경기 직접 관람 시 동행인(중복응답, 단위: %)	55
〈표 Ⅲ-21〉 가족의 스포츠 선호도(단위: Likert 7점 척도)	56
〈표 Ⅲ-22〉 체육활동 참여 의향과 참여 여부(단위: %)	57
〈표 Ⅲ-23〉 친한 친구 수(단위: %)	58
〈표 Ⅲ-24〉 친구들과의 주당 운동 횟수(단위: %)	59
〈표 Ⅲ-25〉 친구들과의 관계(단위: Likert 7점 척도)	60
〈표 Ⅲ-26〉 부모님과의 관계(단위: Likert 7점 척도)	61
〈표 Ⅲ-27〉 운동에 대한 인식(단위: Likert 7점 척도)	62
〈표 Ⅲ-28〉 자아존중감(단위: Likert 7점 척도)	63
〈표 Ⅲ-29〉 배려심(단위: Likert 7점 척도)	64
〈표 Ⅲ-30〉 삶의 만족도(단위: Likert 7점 척도)	65
〈표 Ⅲ-31〉 현재 및 희망 키, 몸무게	66
〈표 Ⅲ-32〉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단위: Likert 7점 척도)	67
〈표 Ⅲ-33〉 성장발달자산 - 종합(단위: Likert 7점 척도)	68
〈표 Ⅲ-34〉 성장발달자산 - 외적 자산, 내적 자산(단위: Likert 7점 척도)	69
〈표 Ⅲ-35〉 성장발달자산 - 외적 자산 세부항목(단위: Likert 7점 척도)	70
〈표 Ⅲ-36〉 성장발달자산 - 내적 자산 세부항목(단위: Likert 7점 척도)	71

〈표 IV-1〉 면접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76
〈표 IV-2〉 심층면접 항목 및 범위	77

그림 목 차

【그림 Ⅱ-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20
【그림 Ⅲ-1】 하루 중 여가시간	37
【그림 Ⅲ-2】 유형별 여가시간	38
【그림 Ⅲ-3】 집주변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정도	39
【그림 Ⅲ-4】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41
【그림 Ⅲ-5】 참여 체육활동 종목	42
【그림 Ⅲ-6】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 시간	43
【그림 Ⅲ-7】 체육활동 참여 기간	44
【그림 Ⅲ-8】 체육활동 강도	45
【그림 Ⅲ-9】 체육활동 참여 요일	46
【그림 Ⅲ-10】 체육활동 참여 시간대	47
【그림 Ⅲ-11】 체육활동 참여 이유	48
【그림 Ⅲ-12】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49
【그림 Ⅲ-13】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50
【그림 Ⅲ-14】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51
【그림 Ⅲ-15】 향후 참여 희망 운동 종목	52
【그림 Ⅲ-16】 최근 1년간 운동경기 직접 관람 여부	53
【그림 Ⅲ-17】 운동경기 직접 관람 종목	54
【그림 Ⅲ-18】 운동경기 직접 관람 시 동행인	55
【그림 Ⅲ-19】 가족의 스포츠 선호도	56
【그림 Ⅲ-20】 체육활동 참여 의향과 참여 여부	57
【그림 Ⅲ-21】 친한 친구 수	58
【그림 Ⅲ-22】 친구들과의 주당 운동 횟수	59
【그림 Ⅲ-23】 친구들과의 관계	60
【그림 Ⅲ-24】 부모님과의 관계	61
【그림 Ⅲ-25】 운동에 대한 인식	62

【그림 Ⅲ-26】 자아존중감	63
【그림 Ⅲ-27】 배려심	64
【그림 Ⅲ-28】 삶의 만족도	65
【그림 Ⅲ-29】 현재 및 희망 키, 몸무게	66
【그림 Ⅲ-30】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	67
【그림 Ⅲ-31】 성장발달자산	6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의 중요성

-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여가를 선용할 수 있어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조화로운 발달에 도움이 되고, 온라인게임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 기능을 함
- 하지만,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맞벌이, 주거환경,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양질의 체육활동에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실태 조사 현황

-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 하지만,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경우, 소득계층 및 연령별로 세분화할 때 해당 대상이 100명 이하로 작아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포츠강좌 바우처(‘09~) : ’11년 현재 7~19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2만9천명 대상 월 6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 스포츠관람 바우처('10~) : '11년 현재 저소득층 가정 2천 가구의 스포츠경기 관람 비용 가구당 10만원(프로단체 및 본인부담 별도) 지원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 필요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체육활동, 체육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운 요인 등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의 의미 및 중요성 고찰
 -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의 다양한 효과 고찰
 -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고찰
 -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현황 포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조사 및 일반 아동·청소년과 비교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참가수준 및 활동유형 조사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일반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 수준 및 형태 등 비교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장애요인 및 추진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 스포츠 강좌 수강 및 스포츠 관람활동 지원에 대한 선호도/만족도 파악
 - 일반 여가활동 및 타 강좌 수강과의 선호도/만족도 비교
 - 희망하는 스포츠 강좌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 체육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지원 사항 파악

3. 연구방법

○ 문헌고찰

-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의 의미, 다양한 효과 및 중요성에 대한 고찰
-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 및 연구 고찰
-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설문조사

- 설문대상 : 서울시에서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2개 지역을 임의로 추출하여(북부와 남부 교육지원청 지역)의 초·중·고 1개교씩 총 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의 초등5, 중2와 중3, 고1의 전체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 실시
- 배경변인(안) : 성별, 연령, 소득수준, 가족형태, 거주지역, 부모직업유무 등
- 주요변인(안) : 여가 및 체육활동 여건, 체육활동 참여형태, 체육활동 참여효과 등

○ 심층면접

- 면접대상 :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습지도,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을 지원 받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7명(남자 3명, 여자 4명)과 현재 K구 내에서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통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7(남자 6명, 여자 1명)명으로 총 14명을 선정하였음
- 주요내용 : 체육활동 참여 실태, 체육활동 참여 제약요인, 체육활동 경험,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 등

○ 전문가자문회의

-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등 다양한 체육활동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검토함

- 정책협의회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협의회를 통해 시급하게 파악되어야 할 내용과 중장기적으로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할 주제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조사를 위한 협조 가능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콜로키움
 -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 프로그램 적용(sports program intervention)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현장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육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개념을 정립함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 효과 및
중요성
2.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현황
3.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 효과 및 중요성

스포츠, 운동, 신체활동 등 각종 체육활동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바람직하고 전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체육활동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여가문화 함양에 기여하며 평생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학창 시절에 적극적인 체육 활동 참여는 운동 및 스포츠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여 장래 활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도록 기여하게 된다.

특히 체육활동은 인간의 신체활동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승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재미와 흥미, 그리고 즐거움 등 내재적 동기 및 가치로 충만한 인간의 본연적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기 체육활동은 조화로운 신체적 발육발달, 건강 및 체력증진, 비만 및 질병 감소 등 신체적 측면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중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신체 외적 영역, 즉 사회적 및 정서적 영역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 체육활동 효과 및 중요성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체육활동 참가와 아동 및 청소년 성장 발달의 관계는 스포츠사회화의 핵심적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주로 체육학 내 스포츠사회학 및 스포츠심리학 하위 영역에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체육활동을 접하고 참가하게 되며, 그리고 운동선수가 되는가? 체육활동 및 스포츠 참가로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체육활동 참가가 인성발달이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여하는가? 체육활동 참가로 인하여 비행이나 일탈이 예방되거나 치유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아동 및 청소년기 체육활동 참가의 가치는 전인적 성장(holistic development)과 정체성 함양(identity formation and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전인적 성장이란 개인의 다양한 발달영역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상생적 발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영역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서의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인적 발달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자아정체성(self-identity) 형성을 통하여 가능하다. 아동 및 청소년기는 주로 “과도기”로 이해된다. 즉 부모나 성인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던 유아기에서 독립된 삶의 주체로서의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것이 변화한다는 의미는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전개된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생애주기에 비하여 그 불안정성과 역동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아동 및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은 바람직한 사회적, 심리적 발달과 함께 문제행동의 감소에도 기여하게 된다(Palen & Coatsworth, 2007).

아동 및 청소년기 바람직한 체육활동 참가는 생애주기의 극적 전환기로서 아동 및 청소년기 자아성찰과 자아확립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신의 능력, 가치, 관심을 탐색하고 성찰하며 발전시키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관심이나 가치를 표현하고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일상 활동과 다르게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자율성(autonomy)을 지니고 자발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기를 문제, 위협, 위기의 대상으로 그에 대한 예방이나 처치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게 된다. 즉,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의 예방적 가치는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없는 청소년기가 최적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단순히 문제없는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사실이 성인기 삶의 도전과 책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ittman et al., 2003).

따라서 단순히 문제 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자질과 지식, 덕성,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청소년 발달과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즉, 생애주기의 중요한 단계로서 청소년기에 습득되어야 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발달과제 및 자질의 배양에 스포츠 참가가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청소년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발달과제 및 자질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발달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 함양과 그를 통한 전인적 발달에 덧붙여,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가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과제의 바람직한 수행에 중요한 기여함을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다(Eccles, Barber, Stone & Hunt, 2003; Passmore & French, 2001).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서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목표영역이나 자질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Lerner et al.(2005)과 Roth(2000)는 청소년 발달은 학업,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영역에서의 역량(competence), 자신감(confidence),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connection), 인성(character), 그리고 배려와 이타심(caring and compassion) 등 다섯 가지 C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Larson(2000)은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이 창의성(creativity), 지도력(leadership), 이타주의(altruism), 그리고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 등 네 가지로 자질로 구성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King et al. (2005)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청소년 발달 문헌을 검토한 후 역량(competence), 대응(coping), 건강(health), 끈기(resilience), 그리고 안녕(well-being) 등 다섯 가지 공통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Benson (2003)은 청소년기에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이라고 개념화하였다. Benson의 발달자산은 총 40개에 이르는데, 크게 외적자산(external assets)과 내적자산(internal assets)으로 구분된다. 외적자산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긍정적 경험과 사회적 여건을 말하며 지지(support), 역능부여(empowerment), 명확한 범위 및 기대(boundaries and expectations), 건설적인 시간활용(constructive use of time) 등 4가지 범주가 포함된다. 내적자산은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의미하며 학습에 대한 열의(commitment to learning), 긍정적 가치관(positive values),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 그리고 긍정적 정체성(positive identity) 등의 범주가 포함된다.

최근 이상과 같은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질이나 요소에 대하여 스포츠 참가가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많은 학술적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Fraser-Thomas et al., 2005; Holt, 2008; Pittman et al, 2003). 긍정적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자질이나 목표영역을 요약하면 먼저 청소년기 바람직한 스포츠 참가는 단지 학업이나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social/emotional), 도덕적(moral), 시민적(civic), 직업적(vocational), 신체적(physical), 인지적(cognitive), 그리고 개인적/문화적(personal/cultural) 영역에서의 발달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스포츠 참가결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발달과제를 수행하고 발달자산을 축적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다섯 가지 기대되는 긍정적 결과, 즉 역량(competence), 인성(character), 관계(connection), 자신감(confidence), 그리고 배려(car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개념화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 대한 논의에서는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이나 준비의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의 주체로 인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는 청소년기 문제 예방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전체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 스포츠 참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공적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서는 성원들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자원과 기회를 골고루 분배하여 각자가 자신의 수요나 필요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회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인프라와 서비스가 성원의 삶이 만족이나 행복,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성원, 특히 청소년의 바람직한 스포츠 참가 경험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 예방 및 중재, 그리고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 주체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체계적인 분석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현황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와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1986년부터 주기별로 전국규모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2010년에는 전체 9,000명을 유효 표본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중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10대 조사대상자 응답을 추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0대 응답자는 총 1,371명으로 이중 남자 응답자는 719명, 여자 응답자는 652명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 ~ 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 ~ 2008년까지 추적조사)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망적 패널조사로 실시되었다. 양 조사결과 중 본 연구의 연구내용을 반영하는 항목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1) 2010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 체육활동 효과 인식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효과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효과가 있다(60.4%)’, ‘매우 효과가 있다(20.2%)’, ‘그저 그렇다(18.8%)’, ‘효과가 없다(0.5%)’, ‘전혀 효과가 없다(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육 활동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80.6%)이 로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0.6%)보다 80%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체육 활동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차이는 두 집단 모두 높은 양상을 보였으나 남학생(84.0%)이 여학생(76.8%)보다 체육 활동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체육 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정도(단위: %)**

구분	전혀 효과 없음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매우 효과 있음
전체(1,371명)	0.1	0.5	18.8	60.4	20.2
남학생(719명)	0.0	0.3	15.7	61.6	22.4
여학생(652명)	0.2	0.8	22.2	59.0	17.8

(2) 체육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

체육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유지(28.8%)’, ‘체중조절(11.8%)’, ‘개인의 즐거움(17.2%)’, ‘스트레스 해소(13.7%)’, ‘자아실현(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체육활동 목적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건강유지(28.1%)’, ‘개인의 즐거움(21.2%)’을 위한 체육활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체중 조절(44.8%)’이 주요한 체육 활동의 목적으로서 행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은 ‘체중 조절’이 체육 활동의 주요한 목적으로 분류됨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4.3%)’ 및 ‘개인의 즐거움(8.6%)’을 위한 목적은 남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18.1%)’ 및 ‘개인의 즐거움(2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여 10대 여학생들에게 있어서 체육활동은 즐거운 행위라기보다는 목적 지향적 활동임을 보여준다. 한편 다른 네 가지 목적에 비해 ‘자아실현’ 비율은 남녀 평균 4.0%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2 체육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단위: %)

구분	건강 유지	체중 조절	스트레스 해소	자아실현	개인의 즐거움
전체(1,371명)	28.0	22.3	13.7	4.0	17.2
남성(719명)	28.1	11.8	18.1	3.8	21.2
여성(652명)	27.6	44.8	4.3	4.8	8.6

(3) 체육 활동 1회 평균 참여 시간

체육 활동 1회 평균 참여 시간은 ‘60~90분 미만(43.0%)’, ‘120분 이상(26.5%)’, ‘30~60분 미만(19.6%)’, ‘90~120분 미만(10.9%)’, ‘30분 미만(0.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분 이상(80.4%)’ 체육 활동 참여 시간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 특성별 체육 활동 1회 평균 참여 시간은 ‘60~90분 미만’ 구간에서 남학생, 여학생 각각 42.2%, 44.9%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30~60분 미만’ 구간에서는 여학생의 비율(33.8%)이 남학생의 비율(1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20분 이상’ 구간에서는 남학생의 비율(32.8%)이 여학생의 비율(12.8%)보다 높게 나타나 체육 활동 시간에 있어서 남학생이 지속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3 체육 활동 1회 평균 참여 시간(단위: %)

구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90분 미만	90~120분 미만	120분 이상
전체(1,371명)	0.6	19.6	43.0	10.9	26.5
남학생(719명)	0.1	12.1	42.2	12.7	32.8
여학생(652명)	1.4	33.8	44.9	7.1	12.8

(4) 체육 동호인 조직 가입 제한 이유

체육 동호인 조직 가입 제한 이유로는 ‘시간이 안 맞아서(42.6%)’, ‘구속 받기 싫어서(17.7%)’, ‘경제적인 부담(9.0%)’,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7.8%)’, ‘마음에 드는 동호인 조직이 없어서(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체육 동호인 조직 가입 제한 이유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시간이 안 맞아서’가 각각 44.2%, 39.2%로 주요 원인을 나타냈다.

표 II-4 체육 동호인 조직 가입 제한 이유(단위: %)

구분	경제적인 부담	시간이 안 맞아서	마음에 드는 동호인 조직이 없어서	구속 받기 싫어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전체(1,371명)	9.0	42.6	7.3	17.7	7.8
남학생(719명)	8.9	44.2	8.2	18.5	7.9
여학생(652명)	9.5	39.2	5.5	15.9	7.5

(5) 체육활동 참여종목

체육활동 참여종목에 대한 결과는 ‘축구(28.4%)’, ‘농구(13.4%)’, ‘겉기(11.3%)’, ‘줄넘기(8.8%)’, ‘헬스(6.0%)’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축구(40.6%)’, ‘농구(19.0%)’, ‘헬스(5.9%)’, ‘겉기(4.5%)’, ‘줄넘기(2.9%)’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겉기(26.1%)’, ‘줄넘기(21.3%)’, ‘헬스(6.7%)’, ‘축구(2.4%)’, ‘농구(1.4%)’ 순으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남학생이 ‘축구(40.6%)’,

‘농구(19.0%)’ 등의 단체종목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걷기(26.1%)’, ‘줄넘기(21.3%)’ 등 개인 활동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체중조절로 나타난 응답경향과 관련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II-5 체육활동 참여종목(단위: %)

구분	축구	줄넘기	걷기	헬스	농구
전체(1,371명)	28.4	8.8	11.3	6.0	13.4
남학생(719명)	40.6	2.9	4.5	5.9	19.0
여학생(652명)	2.4	21.3	26.1	6.7	1.4

(6) 체육활동 참여 횟수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52.4%)’, ‘주 1~2회(22.0%)’, ‘주 3~4회(11.6%)’, ‘주 5~6회(7.9%)’, ‘한 달에 2~3번 이하(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37.6%)’, ‘주 1~2회(28.9%)’, ‘주 3~4회(13.6%)’, ‘주 5~6회(10.8%)’, ‘한 달에 2~3번 이하(5.0%)’의 순이고, 여학생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67.8%)’, ‘주 1~2회(14.3%)’, ‘주 3~4회(9.3%)’, ‘주 5~6회(4.7%)’, ‘한 달에 2~3번 이하(1.4%)’의 순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체 양상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응답자 특성별 체육 활동 참여에 대한 차이는 남학생의 ‘참여하지 않는다’ 비율이 37.7%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67.8%로, 여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체육활동 참여 횟수(단위: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2~3번 이하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전체(1,371명)	52.0	3.3	22.0	11.6	7.9
남학생(719명)	37.7	5.0	28.9	13.6	10.8
여학생(652명)	67.8	1.4	14.3	9.3	4.7

(7) 체육활동 참여 장소

체육활동 참여 장소에 대한 결과는 ‘학교 운동장(28.4%)’, ‘공터(13.4%)’, ‘공원(11.3%)’, ‘사설 체육 도장(8.8%)’, ‘종합 스포츠 센터(6.0%)’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교 운동장(60.0%)’, ‘공터(22.2%)’, ‘공원(7.1%)’, ‘사설 체육 도장(7.1%)’, ‘종합스포츠 센터(2.2%)’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학교 운동장(27.6%)’, ‘공원(9.0%)’, ‘사설 체육 도장(4.8%)’, ‘종합 스포츠 센터(2.9%)’, ‘공터(0.0%)’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합 스포츠 센터와 사설 체육 도장 등 체육활동에 비용이 들어가는 장소의 경우 참여 비율이 다른 장소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표 II-7 **체육활동 참여 장소(단위: %)**

구분	학교 운동장	공원	공터	종합 스포츠 센터	사설 체육 도장
전체(1,371명)	49.7	7.8	16.7	2.3	6.4
남학생(719명)	60.0	7.1	22.2	2.2	7.1
여학생(652명)	27.6	9.0	0.0	2.9	4.8

(8) 체육활동 제한 이유

체육활동 제한 요인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없음(63.6%)’, ‘계엄(17.1%)’, ‘관심 없음(7.8%)’, ‘장소/도구 시설 부재(4.8%)’, ‘동류 부족(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시간이 없음(63.8%)’, ‘계엄(13.8%)’, ‘관심 없음(8.3%)’, ‘장소/도구 시설 부재(5.7%)’, ‘동류 부족(3.5%)’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시간이 없음(63.3%)’, ‘계엄(20.7%)’, ‘관심 없음(7.2%)’, ‘장소/도구 시설 부재(3.9%)’, ‘동류 부족(2.0%)’의 순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체 양상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시간 없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중요한 제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8 체육활동 제한 이유(단위: %)

구분	시간이 없음	계으름	장소/도구 시설 부재	동류 부족	관심 없음
전체(1,371명)	63.6	17.1	4.8	2.8	7.8
남학생(719명)	63.8	13.8	5.7	3.5	8.3
여학생(652명)	63.3	20.7	3.9	2.0	7.2

(9) 체육활동 지도자 지도 경험 유무

체육활동 지도자 지도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예(18.7%)’, ‘아니오(81.3%)’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I-9 체육활동 지도자 지도 경험 유무(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체(1,371명)	18.7	81.3
남학생(719명)	18.8	82.2
여학생(652명)	18.6	81.4

(10) 체육활동 전문 지도자에 대한 만족

체육활동 전문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72.9%)’ ‘매우 만족(13.1%)’ ‘보통(13.1%)’ ‘불만족(0.9%)’ ‘매우 불만족(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 이상에서 86%를 나타내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10 체육활동 지도자 만족도(단위: %)

구분	매울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1,371명)	0.0	0.9	13.1	72.9	13.1
남학생(719명)	0.0	0.0	11.0	74.0	15.0
여학생(652명)	0.0	2.9	17.6	70.6	8.9

(11) 체육활동 희망 운동 종목

체육활동 희망 운동 종목에 대한 조사에서는 ‘수영(17.1%)’, ‘축구(8.8%)’, ‘요가(7.5%)’, ‘헬스(4.9%)’, ‘농구(4.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축구(15.4%)’를 선호한 반면 여학생들은 ‘수영(25.5%)’을 선택해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체육활동 희망 운동 종목(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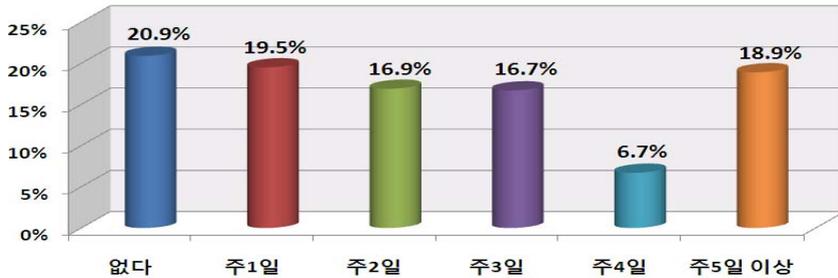
분류	수영	요가	축구	농구	헬스
전체(1,371명)	17.1	7.5	8.8	4.6	4.9
남학생(719명)	9.6	0.6	15.4	7.8	6.5
여학생(652명)	25.5	15.2	1.5	1.1	3.0

2)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 청소년 신체활동

한국청소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신체활동이 부족하고 그리고 교급이 높아질수록 체육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남학생(43.7%)보다는 여학생(71.6%)들이 신체활동 일수가 주 2일 이하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훨씬 높았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신체활동 부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초등학생: 38.6%, 중학생: 55.8%, 고등학생: 71.1%). 또한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일주일 동안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20.9%, 주 1일 및 2일로 응답한 비율은 36.4%로 나타나 약 57.3%에 이르는 청소년의 신체활동 절대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단위: %)

표 II-12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단위: %)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다	주1일	주2일	주3일	주4일	주5일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20.9	19.5	16.9	16.7	6.7	18.9	0.4
성별	남자	100(5,061)	10.0	16.5	17.2	19.6	9.2	27.2	0.3
	여자	100(4,783)	32.4	22.7	16.5	13.7	4.0	10.2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9	17.3	14.4	19.0	10.2	31.8	0.5
	중학교	100(3,254)	20.6	18.1	17.1	18.7	6.9	18.3	0.3
	고등학교	100(3,933)	30.5	22.2	18.4	13.5	4.2	10.8	0.4

주 1) 무응답은 그림에서 표기를 제외함.

(2) 신체 이미지 및 운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 신체체형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이 57.6%로 ‘만족한다’는 응답률 40.7% 보다 16.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에서는 여학생들의 불만족 응답률(66.1%)이 남학생들의 불만족 응답률(49.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만족 응답률-초등학생: 35%, 중학생: 59%, 고등학생: 71.7%). “최근 1년간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6.7%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9.1%(남학생 34.9%)가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체중 감소 방법을 보면 ‘식사량을 줄임(73.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68.0%)’, ‘원 푸드 다이어트(포도, 달걀, 우유, 감자 등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다이어트)(9.6%)’, ‘단식(5.7%)’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소수 응답이기는 하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인 식사 후 구토를 하는 경우나, 의사 처방 없이 살 빼는 약을 먹는 경우도 각각 1.8%, 1.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교급이 높아갈수록 단식, 의사 처방 없이 약물 복용, 식사 후 구토 등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단위: %)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식사량을 줄임	규칙적인 운동	원 푸드 다이어트	단식(24시간 이상)	의사 처방 받아 약 복용	식사 후 구토	의사 처방 없이 약복용
전체		100(9,844)	73.8	68.0	9.6	5.7	2.0	1.8	1.1
성별	남자	100(5,061)	64.3	74.9	7.8	4.2	2.0	1.2	0.7
	여자	100(4,783)	79.8	63.7	10.7	6.7	2.1	2.2	1.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9.8	79.9	11.0	2.3	2.2	1.3	0.8
	중학교	100(3,254)	70.9	68.1	6.6	5.5	2.3	1.3	0.9
	고등학교	100(3,933)	83.9	61.3	11.0	7.8	1.8	2.6	1.5

주 1) 복수 응답 결과임 2) 기타 및 무응답은 제시하지 않았음

3) 요약

이상 2010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와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업부담으로 인한 체육활동 부족

2010년 진행된 청소년 건강 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급이 높아질수록 신체활동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 체육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학업의 중요성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과시간이 학업을 위한 목적에 집중되어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체육활동 및 운동참여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실제적인 참여로 연결되지 않은 점은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비하여 부차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건강 및 체중조절 목적에 편중

체육 활동은 단순히 체육 및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 발달과 바람직한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차원에서도 중요한 아동 및 청소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2010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의 목적이 건강유지 및 체중조절 차원에 머물러 운동 자체의 보람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며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체육활동의 의미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체육활동의 신체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덕목과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기여를 함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운동 종목의 한정과 다양한 시설부족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주된 운동 장소는 학교 운동장이며 주된 운동 종목도 남학생 위주의 축구로 국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학교운동장 외에는 주로 공터에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한편 수영장, 체육관 등 시설 이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체육 동호인조직 활동 저조

유소년 클럽 스포츠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세계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육

동호회 조직 활동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0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분석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체육 동호인 조직 가입 비율은 6.2 대 93.8로 비가입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체육활동 동반자의 제공뿐만 아니라 참가자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과 친화적 체육참여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체육동호인 조직은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체육정책 요건 중 하나이다. 특히 기존의 체육동호인 조직이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의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3.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은 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전문체육은 주로 경기력 향상과 대회입상을 위하여 스포츠 및 체육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주로 초중고대 학교운동부, 실업팀,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 스포츠 경기력 향상과 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생활체육은 지역사회체육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며 남녀노소 모두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가선용,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차원의 체육정책 영역이다. 따라서 생활체육 영역은 참가종목이나 기능수준, 그리고 참여에 대한 부담감 등이 전문체육 영역에 비하여 자유로우며 참가자의 기량이나 역량을 발휘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영역이다. 학교체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신체활동 지식을 습득하여 신체활동이 가지는 가치를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이며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덕체가 통합된 전인교육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학교체육 영역은 체육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정과체육영역, 학교운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체육영역, 그리고 과외자율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체육 영역이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때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제반 체육참여 환경, 자원,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스포츠발전 시스템의 맥락에서 볼 때 아동 및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은 주로 생활체육 영역과 학교체육 영역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전문체육 영역은 소수의 전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특화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연령대 전반을 위한 체육 활성화 정책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의 목적, 대상, 그리고 기대효과의 측면에서 아동 및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는 생활체육 영역과 학교체육 영역에서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영역은 주로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및 종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배치 등의 정책과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 대상이 주로 지역사회의 성인 및 노인층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생활체육 영역의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생활체육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아동 청소년 체육활성화 정책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과제는 아니지만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체육활동 기회 제공 목적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을 생활체육 정책영역의 차원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 10여 년 동안 체육정책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학교체육 영역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학교운동부 운영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운동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이와 연동하여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또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그 추진계획 및 체계 그리고 현장적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을 들 수 있다. 이에 학교현장의 과외자율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포츠바우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복지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관람바우처 사업이 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그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으로의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의 청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국 스포츠바우처 지정 체육시설 이용 시 강좌비 및 용품비 등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의 만 7세에서 19세 청소년 및 청소년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스포츠바우처의 지원액은 2009년 39억2000만원, 2010년 60억원, 2011년 12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원받은 청소년의 수도 2009년 9259명, 2010년 1만4042명, 2011년 2만9000명으로 늘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스포츠강좌바우처”와 “스포츠용품바우처” 2가지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해 오고 있다. 스포츠강좌바우처는 월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강좌에 드는 비용을 월 최대 60,000원까지(2012년부터는 70,000원) 지원하며, 스포츠용품바우처는 스포츠강좌 수강자에 한하여 개인당 연 1회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예를 들어 볼링화 35,000원부터 스케이트화 87,000원까지) 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스포츠용품바우처는 종목마다 용품비가 달라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해 왔고, 용품을 받은 뒤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2012년부터는 스포츠용품바우처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계획에 있다.

스포츠관람바우처 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포츠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계층 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 및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가정을 대상으로 국내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와 핸드볼, 씨름 등 일반 종목 관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관계가 있는 세대원(만 14세 이상)이며,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2) 청소년 수련관프로그램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거하여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각종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통칭하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현장과 학교교육이외의 체험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기능을 부가하여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체험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김중애, 2010). 이는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질배양, 정서함양, 취미개발 등의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임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 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권 수련 시설은 주로 일상생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갈 곳과 쉴 곳을 마련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황영균, 2003).

표 II-14 전국 청소년 수련관 현황

시도	합	설치주체	
		공공	민간
강원	12		
부산	7	7	0
경기	25		
경남	12	12	0
경북	15		
광주	5		
대구	5		
대전	3		
서울	33	31	2
울산	1		
인천	7		
전남	11	11	
전북	13	12	1
제주	3	3	
충남	7		
충북	9	9	
합	168	165	3

〈출처 : e-나라지표〉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2010년 기준 전국 168개이며 시·도별 세부현황은 〈표 II-14〉과 같다. 16개 시·도별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냈다.

한편 체육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체육시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서울시에 배치된 청소년 수련원 33개소 중 28개소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6개소에서는 미운영중이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수련관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프로그램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 정책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 및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분위기 형성을 도모하고자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 동아리활동을 체계적인 학생중심의 자율적 활동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허현미, 2007).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육관련 프로그램 즉,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 방과 후 학교, 과외 체육활동, 체육동아리 활동 등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자발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김진환, 김영식, 2003; 손천택, 성창훈, 김민철, 2006; 김선희, 허현미, 2008). 일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은 교육청에 등록하여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성 및 운영되는 체계화된 스포츠 조직을 의미하며 그 구성원은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과체육이나 운동부와는 별도로 학생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며 특히 축구나 농구 등의 인기종목뿐만 아니라 넷볼이나 킨볼과 같은 뉴스포츠 종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김선희, 허현미, 2008).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의 일환, 그리고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의 배경 중 하나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그에 따른 건강 및 비만문제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부담과 컴퓨터 게임 등으로 인한 운동부족 현상으로 체력 저하 및 비만 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학생들의 운동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 증가율이 2003년 10.0%, 2006년 11.9%, 2009년 13.7%로 해가 지날수록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비만 학생의 증가는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체력저하를 동반하게 되는데 안민석(2008)은 2000년과 비교해 2007년에는 체력급수 1, 2등급은 13%가 감소했고 4, 5등급은 16%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과도한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통제공간이 아닌 인성 함양 및 즐거운 학교생활을 제고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허현미, 김선희, 2008).

표 II-15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현황

연도	학교 현황(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학교수	학생수 (초4~고3)	교원수	운영학교수	등록학생수	등록교원수	등록강사 (코치)수
2007	10,947	5,718,028	395,379	8,286 (75.7%)	460,591 (8.1%)	23,029 (5.8%)	2,349
2008	11,080	5,873,827	403,796	10,061 (90.8%)	1,003,575 (17.1%)	38,868 (9.6%)	4,382
2009	11,160	5,838,680	409,217	10,424 (93.4%)	1,597,308 (27.4%)	53,128 (13.0%)	5,621
2010	11,237	5,758,644	411,958	10,957 (94.3%)	2,167,772 (37.6%)	67,062 (16.3%)	6,239

* 전체 학교수: '07~'10 교육통계연보(KEDI) 자료(특수학교 제외)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2011)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육성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2009년 학교스포츠클럽육성계획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대회참여, 우수사례 발표대회, 유공자 연수 등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은 최근 3년간 약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표 I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현재까지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학생 10%를 목표로 진행되었던 시범운영 첫해에는 등록 학생수 460,591명(8.1%)의 등록률을 나타냈지만, 2008년 1,000,575명(17.1%), 2009년 1,579,308명(27.4%), 그리고 2010년 2,167,772명(3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등록교원 및 등록강사(코치) 역시 2007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책적 중요성은 학생들의 체력 및 건강증진 차원뿐만 아니라 인성발달, 학업향상 도모, 즐거운 학교생활 영위 등 다양한 동반가치 및 덕목의 함양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는 신체적 건강증진, 사회성 발달, 바람직한 정서적 발달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창의 인성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가장 효과적인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 틀에 박힌 교육 방식, 수동적인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망각하게 되고 이는 사회생활까지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율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참여 학생이 스포츠에 대한 즐거움을 찾고 재능을 발견하여 우수한 체육인재, 우수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학교스포츠클럽은 이러한 기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체육과 우리나라 전체의 전반적이고 본질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아동 및 청소년 중심 체육정책 필요성

위에서 살펴 본 스포츠바우처 정책이나 학교스포츠클럽 정책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 중심의 체육활성화 정책들은 극히 최근에 이르러 비로소 그 가시적인 노력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은 매우 미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상별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육활성화 맞춤형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 및 청소년기 체육활동 효과 및 중요성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발달 측면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향후 국가 및 사회발전을 이끌 인적자원의 바람직한 성장발달과 교육적 가치실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기 체육활성화 정책의 유의성은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그동안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 다양한 생애주기별 체육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참여 인프라 차원에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체육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들의 성숙도가 미진하여 국민들의 체육참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참여 수요 또한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신체활동이 왕성한 아동 및 청소년기의 여가활동이 주로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활동(즉, TV보거나 게임 등)으로만 이루어짐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기 체육활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장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 및 노인층 또한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활동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 및 노인층의 체육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체육활동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과 의미의 직접적인 체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기의 즐겁고 긍정적인 체육활동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인기 체육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동 및 청소년기의 긍정적이고 즐거운 체육활동 참여경험은 향후 성인기 및 노년기의 체육활동 참여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남녀노소 모두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 장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제 3 장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각각 2개교씩을 임의로 표집하여 표집된 학교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배경변인 등 다수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34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43명, 총 77명의 자료를 제외한 1,74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설문조사 대상자 현황

대상자 특성		학생	
		사례수(명)	비율(%)
전체		1,745	100.0
성별	남	949	54.4
	여	796	45.6
교급별	초등학교	243	13.9
	중학교	843	48.3
	고등학교	659	37.8
경제수준 ¹⁾	저소득층	388	22.2
	일반	1,357	77.8

1) 학생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가정형편 문항과는 별도로 설문조사 대상자 중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저소득층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설문조사 대상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의 주된 내용은 여가 및 체육활동 여건, 체육활동 참여행태, 체육활동 참여효과, 그리고 배경변인이다. 설문지의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설문지 내용

영역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출처
배경변인	성별	배문1	1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가족구성	배문2	1	
	부모 학력	배문3	2	
	부모 직업유무	배문4	2	
	학업성적	배문5	1	
	가정형편(경제수준)	배문6	1	
	집 주소	배문7	1	
	학년, 반, 번호	배문8	1	연구진 작성
여가 및 체육활동 여건	여가시간(평일, 휴일)	문1	2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여가활용방법(게임, 공부, 학원, 운동)	문2	5	연구진 작성
	집 주변 체육시설 유무	문3	2	연구진 작성
체육활동 참여행태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문4	1	연구진 작성
	참여 체육활동 종목	5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 시간	5-1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체육활동 참여 기간	5-2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변형
	체육활동 강도	5-3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체육활동 참여 요일	6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체육활동 참여 시간대	7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체육활동 참여이유	8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영역	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출처
체육활동 참여행태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	9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10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11	11	연구진 작성
	향후 참여 희망 운동 종목	12	1	연구진 작성
	최근 1년간 운동경기 직접관람 여부	13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운동경기 직접 관람 횟수	13-1	1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운동경기 직접 관람 종목	13-2	1	연구진 작성
	운동경기 직접 관람 시 동행인	13-3	1	연구진 작성
	가족의 스포츠 선호도	14	4	연구진 작성
	체육활동 참여 의향과 참여 여부	15	1	연구진 작성
	체육활동 참여 시 부족한 점	15-1	1	연구진 작성
참여 효과	친한 친구 수	16	1	연구진 작성
	친구들과의 주당 운동 횟수	17	1	연구진 작성
	친구들과의 관계	18	4	김남수외(2010)
	부모님들과의 관계	19	4	
	운동에 대한 인식	20	2	연구진 작성
	자아존중감	21	10	Rosenberg, 전병재 역(1974)
	배려와 이타심	22	1	연구진 작성
	삶의 만족도	23	3	이경상외(2011, 발간예정)
	현재 키, 몸무게	24	2	연구진 작성
	희망 키, 몸무게	25	2	연구진 작성
	자가 진단한 건강 정도	26	1	연구진 작성
자가 진단한 체력 정도	27	1	연구진 작성	
성장발달자산	28	46	Peters, 정찬우 역(2010)	

배경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에서 배경문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가족구성, 부모학력, 부모직업유무, 학업성적, 가정형편(경제적 수준)에 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체육활동 참여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체육활동 참여와 비참여를

구분하였는데, 구분의 기준은 설문조사 문항 4번인 ‘요즘 운동을 얼마나 자주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에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비참여’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참여’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우선 체육활동 참여 실태와 관련된 ‘여가 및 체육활동 여건’과 ‘체육활동 참여행태’, 그리고 ‘체육활동 참여의 효과’와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시켰다. 설문조사 문항들은 국민생활체육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과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문항들이 대부분이었고, 체육활동 참여효과 중 일부 문항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활용하였다.

체육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설문 문항은 대부분 리커트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에 답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와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김남수 등(2010)이 사용한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각 4문항씩 총 8문항이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문항을 전병재(1974)가 번역한 10문항이며, ‘삶의 만족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이경상의, 2011, 발간예정)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성장 발달자산은 Peters(1999)가 개발한 문항을 정찬우(2010)가 수정, 보완하여 만든 46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외적자산과 내적자산이며, 외적자산은 다시 지지, 역량함양의 기회, 분명한 범위와 기대, 건설적인 시간활용, 내적자산은 학습열의,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능력, 긍정적 정체감으로 구분된다.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외적자산은 0.873, 내적자산은 0.909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으로 지지는 0.840, 역량함양의 기회는 0.734, 분명한 범위와 기대는 0.593, 건설적인 시간활용은 0.514, 학습열의는 0.718, 긍정적 가치관은 0.708, 사회적 능력은 0.783, 긍정적 정체감은 0.87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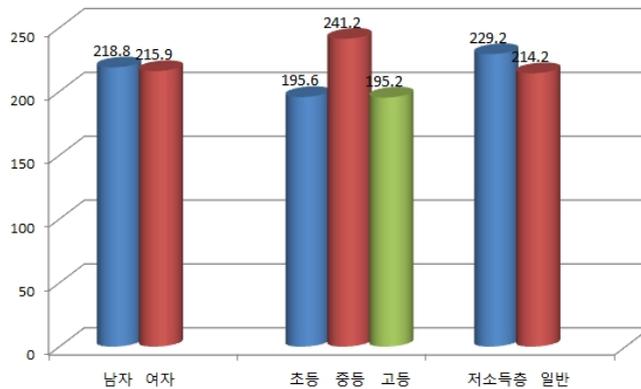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1) 여가 및 체육활동 여건

(1) 하루 중 여가시간

초·중·고등학생 중 중학생이 가장 여가 시간이 많았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차이가 없고, 휴일에 여자보다 남자가 여가시간이 많았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평일 여가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학생과 초등·고등학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중학생의 평일 여가시간은 241.2분으로 초등학생 195.6분, 고등학생 195.2분보다 높게 나타났다.
- 평일에는 여가시간의 남녀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휴일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휴일 남자의 여가시간은 464.9분, 여자는 432.8분으로 나타났다.
- 휴일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여가시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휴일 중학생의 여가시간은 487.3분으로 고등학생의 405.7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은 여가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 하루 중 여가시간(단위: 분)

표 Ⅲ-3 하루 중 여가시간(단위: 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평일			휴일		
			평균	표준편차	t, F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745	217.5	134.7		450.2	269.1	
성별	남자 ^a	949	218.8	136.6	0.453	464.9	274.8	2.482
	여자 ^b	796	215.9	132.3		432.8	261.3	
교급별	초등학교 ^a	243	195.6	130.6	25.995** (b)>a, c)	442.5	297.3	17.431** (b)>c)
	중학교 ^b	843	241.2	137.6		487.3	265.4	
	고등학교 ^c	659	195.2	127.1		405.7	2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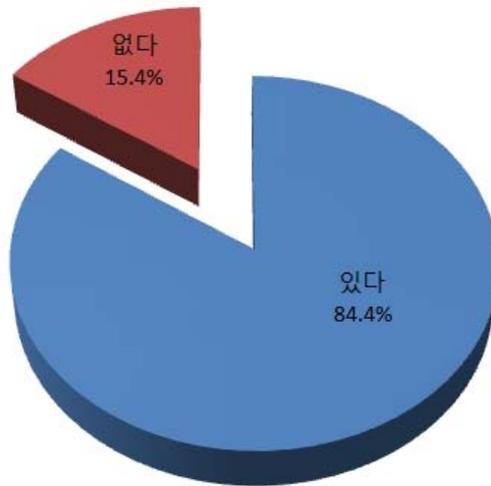
표 III-4 유형별 여가시간(단위: 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게임시간			공부시간			운동시간		
			평균	표준편차	t, F	평균	표준편차	t, F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745	76.7	79.1		196.6	150.4		50.8	55.3	
성별	남자 ^a	949	98.4	82.1	13.322** (a>b)	197.9	156.5	0.402	61.0	58.4	8.730** (a>b)
	여자 ^b	796	50.9	66.8		195.0	142.8		38.6	48.6	
교급별	초등학교 ^a	243	84.4	81.2	6.187** (a, b>c)	208.1	143.7	0.868	69.9	56.3	21.069** (a>b>c)
	중학교 ^b	843	81.1	76.0		193.7	144.7		51.1	55.9	
	고등학교 ^c	659	68.3	81.6		196.0	159.6		43.3	52.3	
경제수준	저소득층 ^a	388	90.8	90.3	3.612** (a>b)	176.9	156.8	2.927** (a>b)	54.2	55.4	1.389
	일반 ^b	1,357	72.7	75.2		202.2	148.1		49.8	55.2	
체육참여	비참여 ^a	353	62.5	85.2	3.811** (a<b)	194.6	155.2	0.293	11.6	38.2	19.621** (a<b)
	참여 ^b	1,385	80.4	77.1		197.2	149.2		60.7	54.5	

** α .01

(3) 집주변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정도

전체 응답자의 84.4%가 집근처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평균 3.1개의 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III-3】 집주변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정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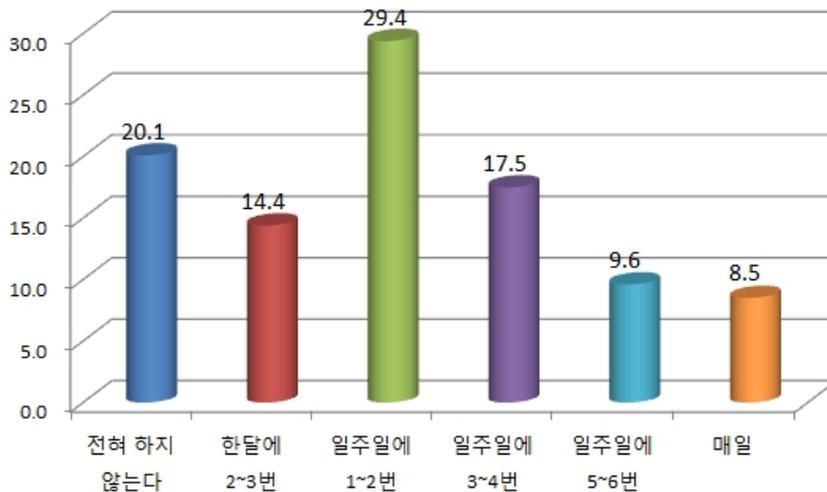
표 III-5 입주변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정도(단위: %)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있다	없다	무응답	시설 수			χ^2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1,745)	84.4	15.4	0.2	1,417	3.1	2.18		
성별	남자	100(949)	84.0	15.7	0.3	771	3.2	2.36	0.890
	여자	100(796)	84.9	14.9	0.1	646	2.9	1.93	
교급 별	초등학교	100(243)	78.6	21.0	0.4	191	2.8	1.64	12.031 (p=.017)
	중학교	100(843)	84.6	15.4	0.0	688	3.1	2.12	
	고등학교	100(659)	86.3	13.2	0.5	538	3.0	2.41	
경제 수준	저소득층	100(388)	82.0	17.8	0.3	309	2.9	2.12	2.285
	일반	100(1,357)	85.1	14.7	0.2	1,108	3.1	2.20	
체육 참여	비참여	100(353)	77.9	21.2	0.8	261	3.0	2.8	0.561
	참여	100(1,385)	86.0	13.9	0.1	1,149	3.1	2.1	

2) 체육활동 참여 형태

(1)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학년 보다는 저학년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음



【그림 Ⅲ-4】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단위: %)

표 Ⅲ-6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부 및 빈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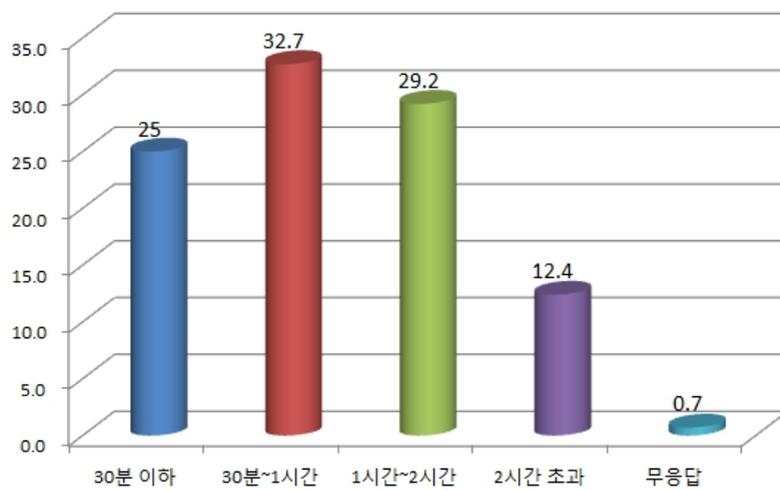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전혀 하지 않는다	한달에 2~3번 이하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5~6번	매일	무응답	χ^2
전체		100(1,745)	20.1	14.4	29.4	17.5	9.6	8.5	0.5	
성별	남자	100(949)	11.1	11.2	32.8	20.2	13.0	11.4	0.4	162.481**
	여자	100(796)	30.9	18.3	25.4	14.3	5.5	5.0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43)	9.1	11.9	28.8	16.5	15.6	16.5	1.6	85.599**
	중학교	100(843)	20.2	14.5	28.1	20.5	10.7	5.9	0.1	
	고등학교	100(659)	24.1	15.3	31.4	14.1	5.9	8.8	0.5	
경제수준	저소득층	100(388)	18.8	12.4	29.6	20.1	10.1	8.8	0.3	4.391 (p=.624)
	일반	100(1,357)	20.5	15.0	29.3	16.8	9.4	8.4	0.5	

**p<.01

(3)-1.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 시간

청소년들의 1회 체육활동 참여 시간은 78.8분으로 남자(88.4분)가 여자(64.0분)보다 길고, 저소득층(83.4분)이 일반 학생(77.5분)들보다 길게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82.6분으로 가장 길고 초등학생이 78.4분, 중학생이 76.1분 동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 시간(단위: %)

표 III-8 1회 평균 체육활동 참여 시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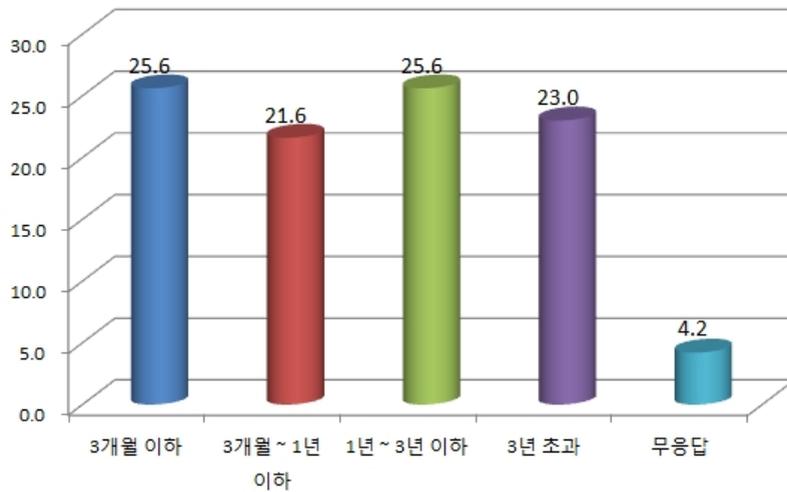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30분 이하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초과	무응답	평균(분)	표준 편차	t, F
전체		100(1,392)	25.0	32.7	29.2	12.4	0.7	78.8	39.6	
성별	남자 ^a	100(843)	20.8	27.5	33.9	17.3	0.5	88.4	58.7	8.616** (a)b
	여자 ^b	100(549)	31.5	40.6	21.9	4.9	1.1	64.0	46.0	
교급 별	초등학교 ^a	100(220)	24.5	29.1	32.7	13.2	0.5	78.4	50.7	1.930
	중학교 ^b	100(673)	26.9	34.2	26.6	11.4	0.9	76.1	56.9	
	고등학교 ^c	100(499)	22.6	32.3	31.1	13.4	0.6	82.6	55.1	
경제 수준	저소득층 ^a	100(315)	27.0	27.3	31.7	14.0	0.0	83.4	68.5	1.424
	일반 ^b	100(1,077)	24.4	34.3	28.4	12.0	0.9	77.5	50.9	

**p<.01

(3)-2. 체육활동 참여 기간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간은 28.5개월로 남자(33.6개월)가 여자(20.7개월)보다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하였으며, 저소득층(23.4개월)보다 일반 학생들(30.0개월)이 더 오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29.8개월), 고등학교(28.5개월), 중학교(26.0개월)순으로 오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체육활동 참여 기간(단위: %)

표 III-9 체육활동 참여 기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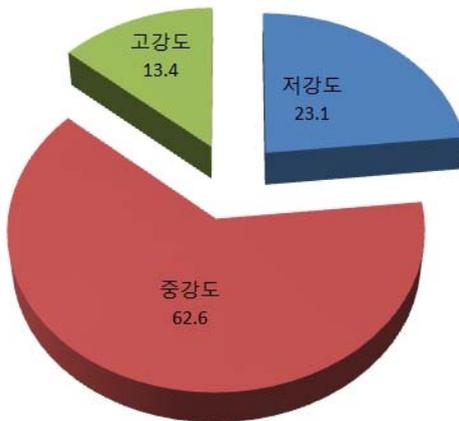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3개월 이하	3개월 ~ 1년 이하	1년 ~ 3년 이하	3년 초과	무응답	평균 (개월)	표준 편차	χ^2
전체		100(1,392)	25.6	21.6	25.6	23.0	4.2	28.5	38.9	
성별	남자	100(843)	18.0	22.4	28.4	28.9	2.3	33.6	39.8	107.157**
	여자	100(549)	37.3	20.4	21.3	13.8	7.1	20.7	36.3	
교급 별	초등학교	100(220)	23.2	14.1	32.7	27.3	2.7	29.8	31.3	24.283**
	중학교	100(673)	27.5	22.1	26.3	20.1	4.0	26.0	36.6	
	고등학교	100(499)	24.2	24.2	21.4	25.1	5.0	28.5	38.9	
경제 수준	저소득층	100(315)	31.7	23.8	24.8	16.8	2.9	23.4	35.4	15.313**
	일반	100(1,077)	23.9	21.0	25.8	24.8	4.5	30.0	39.8	

** $p < .01$

(3)-3. 체육활동 강도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중·고강도의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과 일반학생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운동을 하는 강도는 남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급별로는 고등학생들이 고강도의 운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 체육활동 강도(단위: %)

표 III-10 체육활동 강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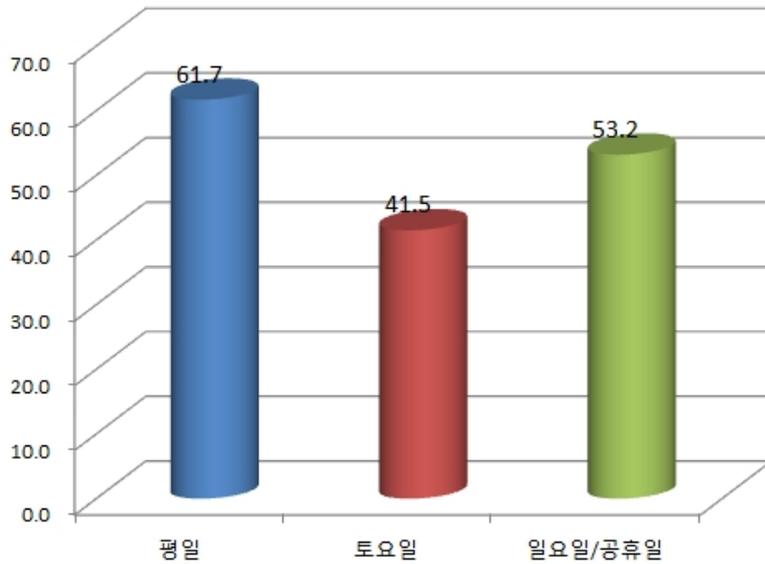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무응답	χ^2
전체		100(1,392)	23.1	62.6	13.4	0.9	
성별	남자	100(843)	16.7	63.6	18.4	1.3	81.027**
	여자	100(549)	32.8	61.2	5.6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20)	20.5	65.5	13.6	0.5	12.590 (p=.050)
	중학교	100(673)	26.3	61.5	11.1	1.0	
	고등학교	100(499)	19.8	62.9	16.2	1.0	
경제 수준	저소득층	100(315)	25.7	60.0	13.0	1.3	2.226 (p=.527)
	일반	100(1,077)	22.3	63.4	13.5	0.8	

** $p < .01$

(4) 체육활동 참여 요일(중복 응답)

중학생들이 평일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일요일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비율도 높음

○ 저소득층과 일반학생들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9】 체육활동 참여 요일(중복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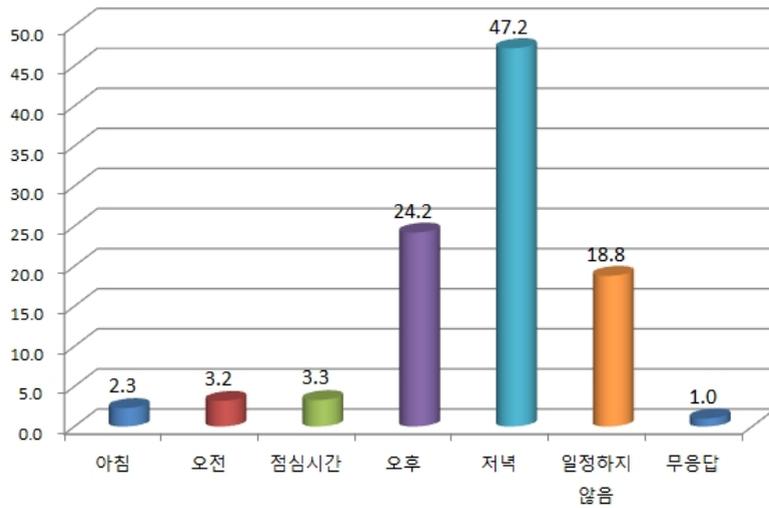
표 III-11 체육활동 참여 요일(중복 응답, 단위: %)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응답
전체		100(1,392)	61.7	41.5	53.2	0.2
성별	남자	100(843)	60.4	43.4	55.3	0.2
	여자	100(549)	63.8	38.6	49.9	0.2
교급 별	초등학교	100(220)	54.5	42.7	59.5	0.5
	중학교	100(673)	68.6	40.0	48.7	0.1
	고등학교	100(499)	55.5	43.1	56.3	0.2
경제 수준	저소득층	100(315)	61.6	44.8	54.9	0.3
	일반	100(1,077)	61.7	41.5	53.2	0.2

(5) 체육활동 참여 시간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의 58.7%가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교급별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III-10】 체육활동 참여 시간대(단위: %)

표 III-12 체육활동 참여 시간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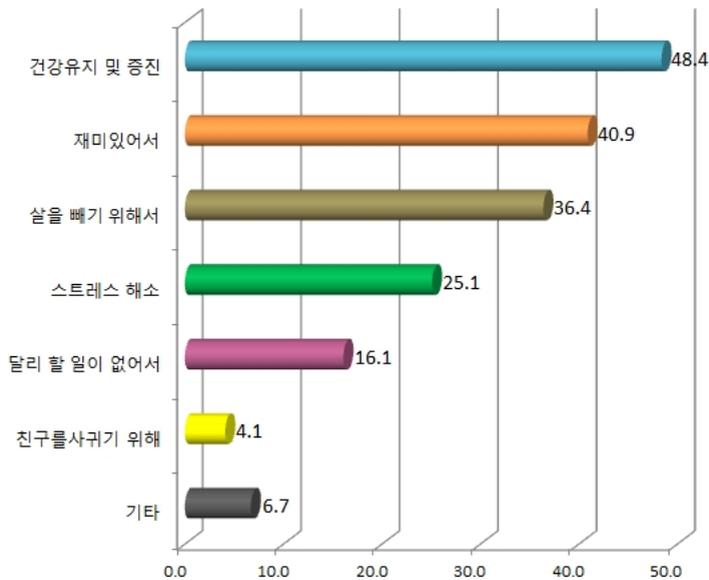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아침	오전	점심 시간	오후	저녁	일정 하지 않음	무응답	χ^2
전체		100(1,392)	2.3	3.2	3.3	24.2	47.2	18.8	1.0	
성별	남자	100(843)	2.5	4.3	5.0	30.5	39.7	17.1	0.9	90.358**
	여자	100(549)	2.0	1.5	0.7	14.6	58.7	21.5	1.1	
교급 별	초등학교	100(220)	1.8	2.7	1.4	45.5	30.9	17.3	0.5	98.207**
	중학교	100(673)	2.2	2.5	3.7	24.2	45.2	20.4	1.8	
	고등학교	100(499)	2.6	4.2	3.6	14.8	57.1	17.4	0.2	
경제 수준	저소득층	100(315)	2.9	3.2	3.2	25.7	41.3	21.3	2.5	14.807 (p=.022)
	일반	100(1,077)	2.1	3.2	3.3	24.2	47.2	18.8	1.0	

** $p < .01$

(6) 체육활동 참여 이유(중복응답)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여학생들은 “살을 빼기위해서” 라고 대답한 비율이 62.3%로 가장 높고, 남학생들은 “건강유지 및 증진” 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8.4%로 가장 높음

○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트레스 해소”라고 대답한 비율은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았다.



【그림 III-11】 체육활동 참여 이유(중복응답, 단위: %)

표 III-13 체육활동 참여 이유(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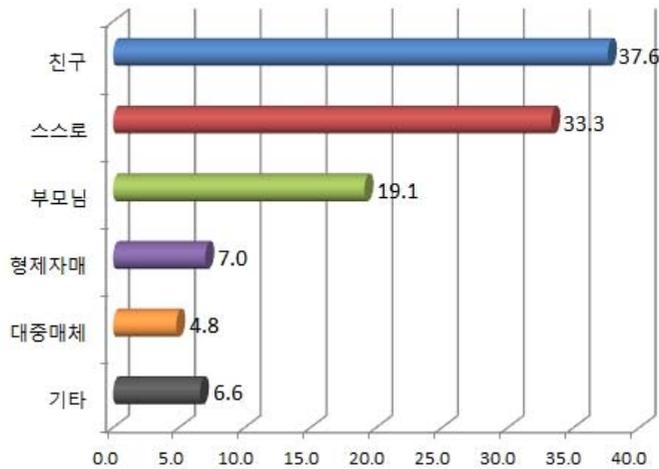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건강유지 및 증진	살을 빼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재미 있어서	기타*	무응답
전체		100(1,392)	16.1	48.4	36.4	25.1	4.1	40.9	6.7	0.2
성별	남자	100(843)	17.1	49.1	19.5	30.1	5.3	56.9	6.1	0.0
	여자	100(549)	14.6	47.4	62.3	17.5	2.2	16.2	7.8	0.5
교급 별	초등학교	100(220)	14.1	41.8	26.8	22.7	4.5	50.0	5.9	0.5
	중학교	100(673)	18.6	50.1	40.3	25.0	4.6	37.7	8.0	0.3
	고등학교	100(499)	13.6	49.1	35.3	26.5	3.2	41.1	5.4	0.0
경제 수준	저소득층	100(315)	17.8	42.2	34.3	25.7	4.4	43.8	5.4	0.3
	일반	100(1,077)	15.6	50.2	37.0	25.0	4.0	40.0	7.2	0.2

*정부가 지원해 줘서라는 응답은 전체의 0.2%로 기타에 포함

(7)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중복응답)

청소년이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로는 친구와 스스로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친구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여자는 스스로 참여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음

- 체육활동 참여에 저소득층이 일반 학생들보다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반학생들은 저소득층 보나 부모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의 영향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중복응답, 단위: %)

표 III-14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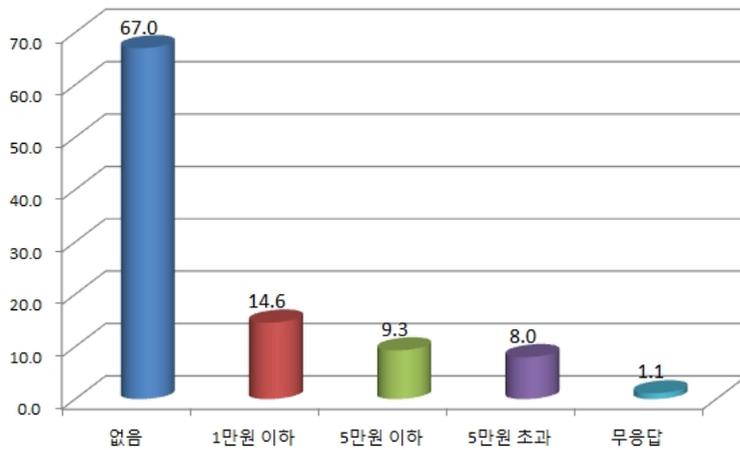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대중매체	스스로	기타	무응답
전체		100(1,392)	19.1	7.0	37.6	4.8	33.3	6.6	0.5
성별	남자	100(843)	16.4	5.3	46.4	3.4	29.9	7.1	0.5
	여자	100(549)	23.3	9.7	24.2	6.9	38.4	5.8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20)	27.7	9.1	34.1	0.5	24.1	6.4	0.9
	중학교	100(673)	17.5	7.4	35.1	5.5	35.7	7.7	0.4
	고등학교	100(499)	17.4	5.6	42.7	5.8	34.1	5.2	0.4
경제수준	저소득층	100(315)	13.0	8.3	42.9	3.8	33.3	7.3	0.0
	일반	100(1,077)	20.9	6.7	36.1	5.1	33.2	6.4	0.6

**학교(선생님)는 1.6%, "체육 동아리/서클/클럽"은 2.4%로 기타에 포함

(8)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

청소년들은 체육활동 경비로 월 13,14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 학생이 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와 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남자는 평균적으로 17,114원으로 여자 7,078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과 일반학생들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13】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단위: %)

표 III-15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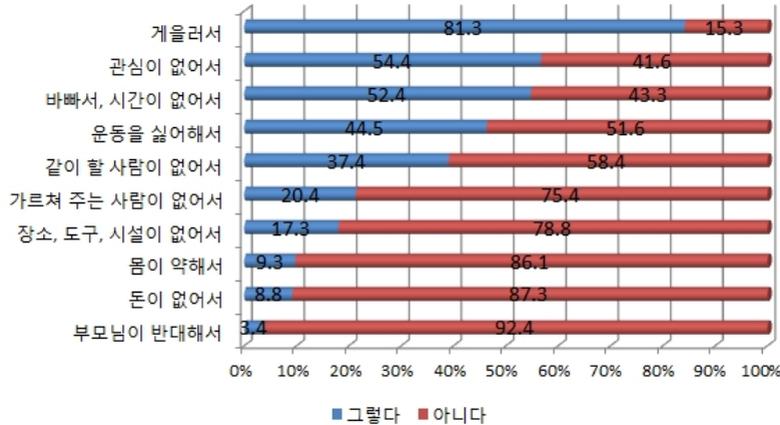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없음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무응답	전체 (n=1,392)		쓰는 사람 (n=445)		
							평균(원)	t, F	평균(원)	t, F	
전체	100(1,392)	67.0	14.6	9.3	8.0	1.1	13,149		40,688		
성별	남자 ^a	100(843)	58.2	18.3	12.1	10.2	1.2	17,114	4,177** (a>b)	41,683	0.550
	여자 ^b	100(549)	80.3	8.9	5.1	4.7	0.9	7,078		37,382	
교급별	초등학교 ^a	100(220)	56.8	24.5	9.1	9.5	0.0	17,197	1.390	39,825	0.460
	중학교 ^b	100(673)	68.6	10.4	10.8	8.2	1.9	13,205		44,016	
	고등학교 ^c	100(499)	69.1	15.8	7.4	7.2	0.4	11,282		36,891	
경제 수준	저소득층 ^a	100(315)	68.6	13.7	12.1	5.4	0.3	12,696	0.208	40,680	0.001
	일반 ^b	100(1,077)	66.5	14.6	8.5	8.8	1.3	13,283		40,690	

** $\alpha < .01$

(9)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체육활동에 비참여하는 이유는 “게을러서” (81.3%), “관심이 없어서” (54.4%),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52.4%)의 순으로 나타남.

-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중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교급과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렇다’라는 응답이 감소하였으며, 저소득층이 일반 학생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
-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 중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교급과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III-14】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단위: %)

표 III-16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단위: %)

번호	문항	그렇다	아니다	χ^2 , p<.01
1	공부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52.4	43.3	교급
2	게을러서	81.3	15.3	성별
3	몸이 약해서	9.3	86.1	교급
4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37.4	58.4	교급, 경제수준
5	주위에 운동할 장소, 도구, 시설이 없어서	17.3	78.8	
6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8.8	87.3	
7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20.4	75.4	교급
8	관심이 없어서	54.4	41.6	
9	부모님이 반대해서	3.4	92.4	교급
10	운동을 싫어해서	44.5	51.6	

(11) 최근 1년간 운동경기 직접 관람 여부 및 횟수

여자보다는 남자가,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의 관람 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체육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관람 횟수가 높음

- 운동경기 관람 횟수는 남자와 여자의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남자는 년 평균 3.6회, 여자는 2.0회로 나타났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교급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2.7회, 초등학교는 5.4회로 초등학교의 관람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6】 최근 1년간 운동경기 직접 관람 여부(단위: %)

표 III-18 최근 1년간 운동경기 직접 관람 횟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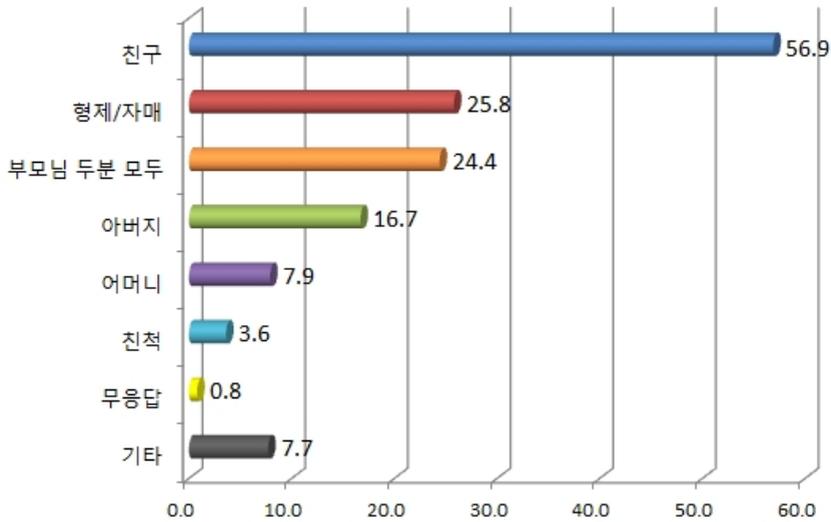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음(빈도)	있음 (n=504)					무응답 제외 (n=497)		t, F	
			1회	2회 이하	5회 이하	5회 초과	무응답	평균 (횟수)	표준 편차		
전체	100(1,745)	71.0(1,239)	40.9	25.8	23.2	8.7	1.4	3.1	5.7		
성별	남자 ^a	100(949)	63.3(601)	36.9	26.2	24.5	10.7	1.7	3.6	6.7	2,899** (a)b)
	여자 ^b	100(796)	80.2(638)	49.7	24.8	20.4	4.5	0.6	2.0	1.5	
교급별	초등학교 ^a	100(243)	67.9(165)	30.8	26.9	29.5	11.5	1.3	5.4	11.5	7,255** (a)b, c)
	중학교 ^b	100(843)	69.9(589)	41.7	26.0	22.0	9.1	1.2	2.7	3.3	
	고등학교 ^c	100(659)	73.6(485)	44.2	25.0	22.1	7.0	1.7	2.7	4.1	
경제수준	저소득층 ^a	100(388)	72.4(281)	35.8	28.3	26.4	4.7	4.7	3.1	6.5	0.051
	일반 ^b	100(1,357)	70.6(958)	42.2	25.1	22.4	9.8	1.4	3.1	5.5	
체육참여	비참여 ^a	100(353)	84.4(298)	60.0	23.6	14.5	1.8	0.0	1.7	1.13	1,946
	참여 ^b	100(1,385)	67.8(939)	38.5	26.1	24.3	9.5	1.6	3.3	6.00	

** $\alpha < 0.01$

(12)-2. 운동경기 직접 관람 시 동행인(중복응답)

청소년들이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을 할 때 친구(56.9%)와 함께 가는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형제/자매(25.8%), 부모님(24.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저학년 일수록 부모님, 형제/자매와 직접 관람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와 가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III-18】 운동경기 직접 관람 시 동행인(중복응답, 단위: %)

표 III-20 운동경기 직접 관람 시 동행인(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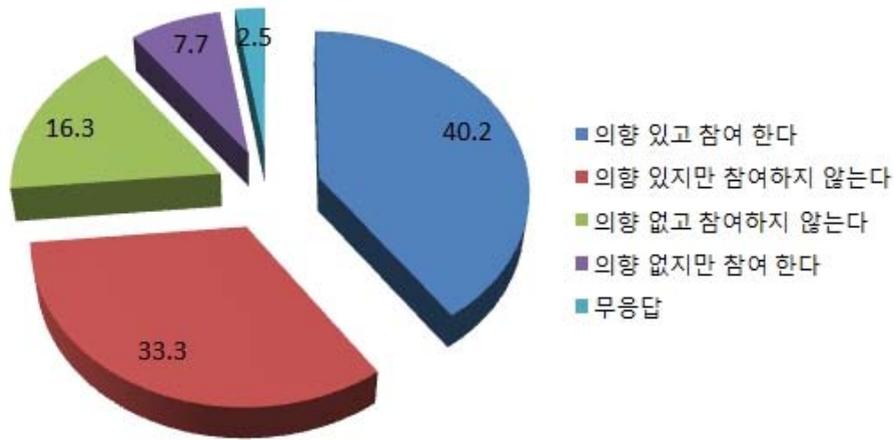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부모님 두 분 모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친척	기타	무응답
전체		100(504)	24.4	16.7	7.9	25.8	56.9	3.6	7.7	0.8
성별	남자	100(347)	21.3	17.0	6.9	21.0	64.0	3.5	6.1	1.2
	여자	100(157)	31.2	15.9	10.2	36.3	41.4	3.8	11.5	0.0
교급 별	초등학교	100(78)	38.5	20.5	20.5	37.2	33.3	5.1	11.5	1.3
	중학교	100(254)	23.6	15.5	5.5	25.2	59.1	3.5	8.3	0.8
	고등학교	100(172)	19.2	17.4	5.8	21.5	64.5	2.9	5.2	0.6
경제 수준	저소득층	100(106)	20.8	15.1	9.4	20.8	58.5	2.8	8.5	0.0
	일반	100(398)	25.4	17.1	7.5	27.1	56.5	3.8	7.5	1.0
체육 참여	비참여	100(55)	30.9	10.9	5.5	29.1	50.9	5.5	7.3	1.8
	참여	100(444)	22.7	16.9	7.9	25.5	58.1	3.6	7.8	0.7

* 할아버지/할머니(0.7%)는 기타에 포함

(14) 체육활동 참여 의향과 참여 여부

체육활동 참여 의향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짐

- 체육활동 참여 의향의 남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체육활동에 참여의향과 참여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20】 체육활동 참여 의향과 참여 여부(단위: %)

표 III-22 체육활동 참여 의향과 참여 여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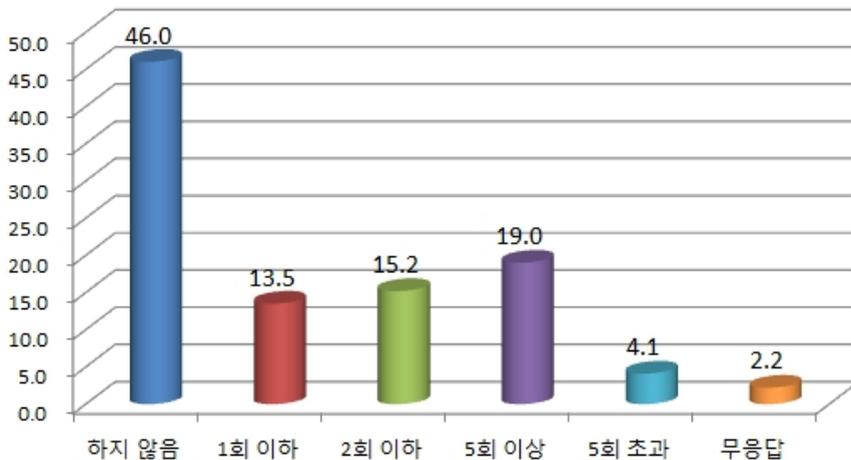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의향 있고 참여 한다	의향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다	의향 없고 참여하지 않는다	의향 없지만 참여 한다	무응답	χ^2
전체		100(1,745)	40.2	33.3	16.3	7.7	2.5	
성별	남자	100(949)	51.6	27.4	12.9	5.9	2.2	114.556**
	여자	100(796)	26.5	40.3	20.4	9.9	2.9	
교급 별	초등학교	100(243)	52.7	18.5	14.8	13.2	0.8	53.262**
	중학교	100(843)	40.7	34.0	16.6	6.6	2.0	
	고등학교	100(659)	34.9	37.8	16.4	7.1	3.8	
경제 수준	저소득층	100(388)	41.8	32.7	14.7	7.7	3.1	1.773
	일반	100(1,357)	39.7	33.5	16.7	7.7	2.4	
체육 참여	비참여	100(353)	4.0	48.4	38.8	6.5	2.3	313.420**
	참여	100(1,385)	49.3	29.5	10.5	8.1	2.5	

** $p < .01$

(2) 친구들과의 주당 운동 횟수

남자가 여자보다 친구들과 운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와 여자의 친구들과 주당 운동을 하는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친구들과 하는 주당 운동 횟수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III-22】 친구들과의 주당 운동 횟수(단위: %)

표 III-24 친구들과의 주당 운동 횟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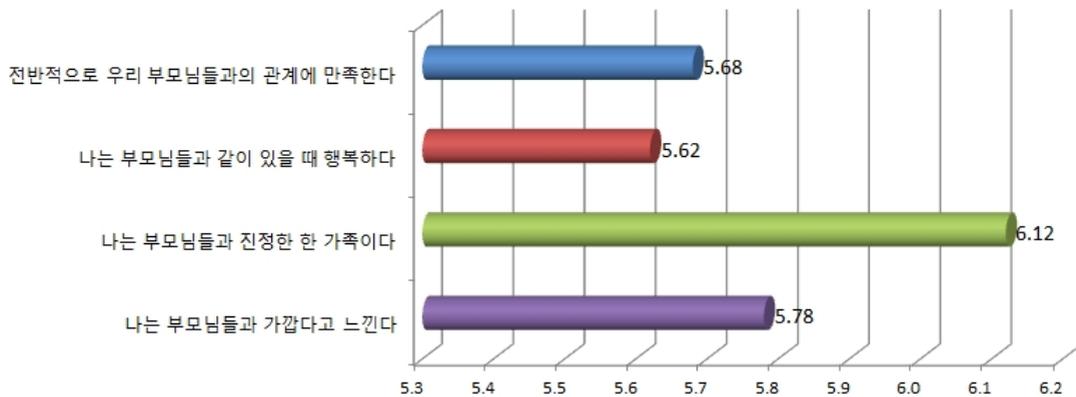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하지 않음	1회 이하	2회 이하	5회 이하	5회 초과	무응답	평균 (횟수)	표준 편차	t, F	
전체		100(1,745)	46.0	13.5	15.2	19.0	4.1	2.2	1.44	1.91		
성별	남자 ^a	100(949)	29.9	16.9	20.0	25.3	5.6	2.3	1.95	2.07	12.841**	
	여자 ^b	100(796)	65.1	9.5	9.4	11.4	2.4	2.1	0.84	1.48		(a)b
교급 별	초등학교 ^a	100(243)	29.2	12.3	21.0	26.3	7.0	4.1	2.01	1.94	17.933**	
	중학교 ^b	100(843)	49.5	11.4	11.6	21.9	3.0	2.6	1.50	2.08		(a)b)c
	고등학교 ^c	100(659)	47.6	16.7	17.6	12.4	3.0	2.6	1.17	1.57		
경제 수준	저소득층 ^a	100(388)	41.0	14.9	17.3	22.2	2.8	1.8	1.49	1.70	0.592	
	일반 ^b	100(1,357)	47.4	13.1	14.6	18.1	4.5	2.4	1.43	1.96		
체육 참여	비참여 ^a	100(353)	86.7	5.9	2.8	2.3	0.0	2.3	0.19	0.64	24.431**	
	참여 ^b	100(1,385)	35.7	15.5	18.2	23.2	5.2	2.2	1.76	1.99		(a)b

** p<.01

(4)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전반적인 관계는 초등학교가 가장 좋았음

-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에대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은 중,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Ⅲ-24】 부모님과의 관계(단위: Likert 7점 척도)

표 Ⅲ-26 부모님과의 관계(단위: Likert 7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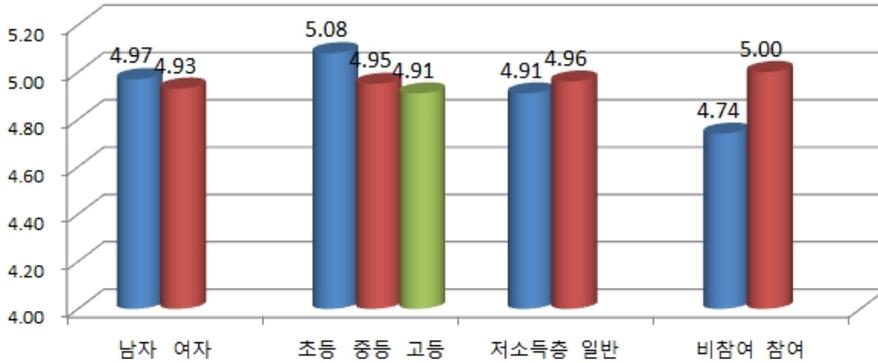
번호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p<.01
1	나는 부모님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1,743	5.78	1.30	
2	나는 부모님들과 진정한 한 가족이다	1,744	6.12	1.40	
3	나는 부모님들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	1,744	5.62	1.22	초)중
4	전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1,744	5.68	1.28	초)중, 고
부모님과의 관계 종합(문항1~4 평균)		1,744	5.48	1.13	초)중

*무응답을 제외한 사례수임.

(6) 자아존중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체육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26】 자아존중감(단위: Likert 7점 척도)

표 III-28 자아존중감(단위: Likert 7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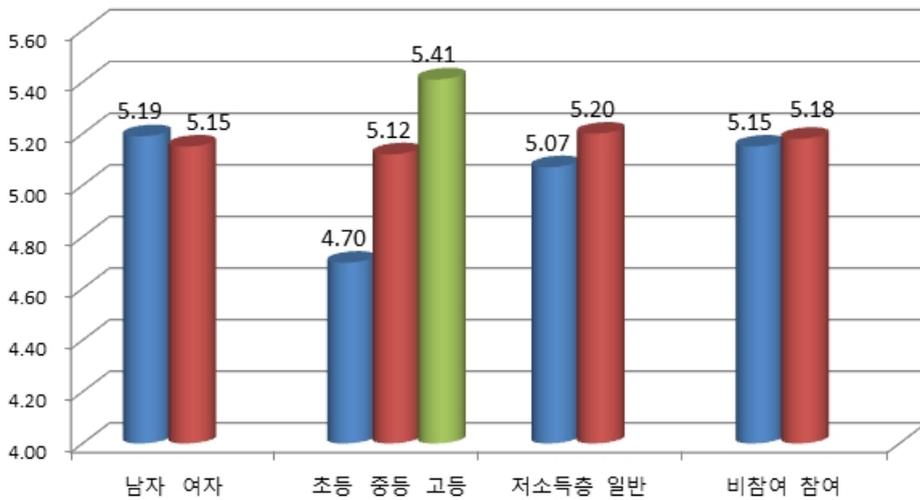
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t, F, p(<.01)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43	1.34	
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5.08	1.36	고>초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2.90	1.61	남>여, 고>초, 중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5.16	1.40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46	1.62	고>초, 중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04	1.41	참여>비참여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4.87	1.47	남>여 초, 중>고 참여>비참여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5.06	1.34	고>초 참여>비참여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8	1.70	고>초 참여>비참여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60	1.61	중, 고>초
자아존중감 종합(문항1~10 평균)*		4.95	0.97	참여>비참여

* 평균 산출 시 3, 5, 9, 10번 문항은 1-7, 7-1로 리코드함

(7) 배려심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이 배려심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배타심에 대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7】 배려심(단위: Likert 7점 척도)

표 III-29 배려심(단위: Likert 7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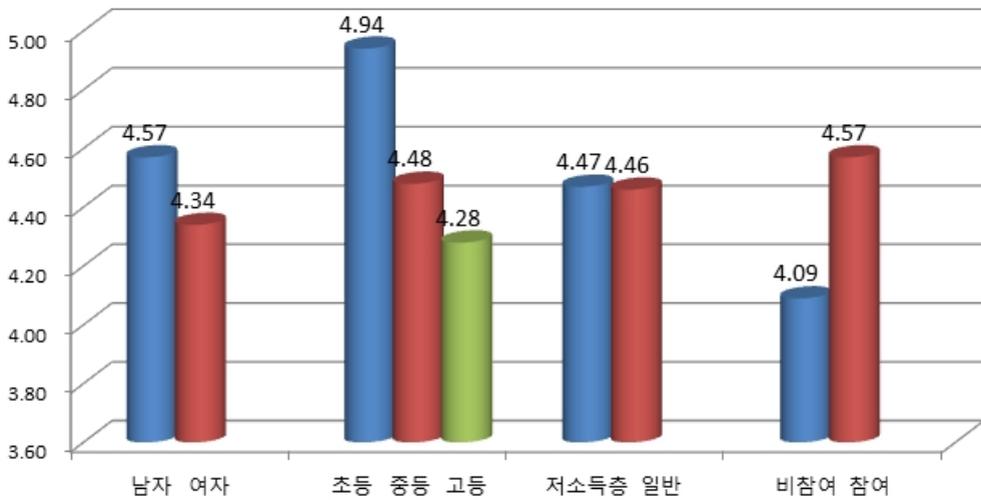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낮음 (1~2)	보통 (3~5)	높음 (6~7)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1,745)	1.5	57.3	40.7	0.5	5.17	1.14	
성별	남자 ^a	100(949)	1.9	56.0	41.6	0.5	5.19	1.21	0.696
	여자 ^b	100(796)	1.0	58.9	39.7	0.4	5.15	1.04	
교급	초등학교 ^a	100(243)	3.3	70.2	24.8	1.7	4.70	1.23	37.451** (a(b(c))
	중학교 ^b	100(843)	1.2	61.9	36.9	0.4	5.12	1.07	
	고등학교 ^c	100(659)	1.2	47.2	51.4	0.2	5.41	1.12	
경제수준	저소득층 ^a	100(388)	1.5	62.1	35.8	0.5	5.07	1.13	2.025
	일반 ^b	100(1,357)	1.5	56.0	42.1	0.4	5.20	1.14	
체육참여	비참여 ^a	100(353)	2.0	55.2	42.2	0.6	5.15	1.20	0.363
	참여 ^b	100(1,384)	1.4	57.9	40.3	0.4	5.18	1.12	

**p<.01

(8)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높으며 체육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와 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중,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체육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림 III-28】 삶의 만족도(단위: Likert 7점 척도)

표 III-30 삶의 만족도(단위: Likert 7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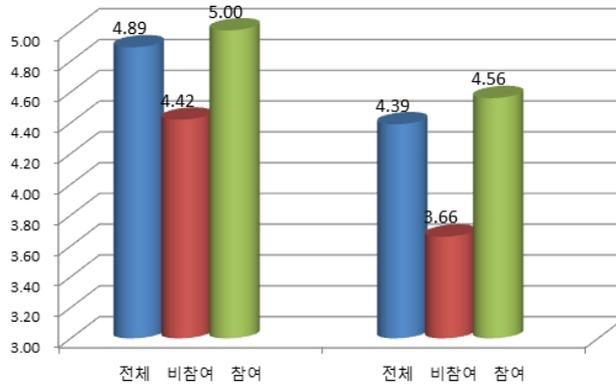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F, p<.01
1	나는 사는데 즐겁다	4.97	1.49	남)여, 초)중, 고, 참여)비참여
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3.64	1.75	남)여, 초)중)고 참여)비참여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4.78	1.54	초)중, 고 참여)비참여
삶의 만족도 종합*		4.46	1.37	남)여, 초)중, 고 참여)비참여

* 1~3번 문항을 평균한 점수임

(10)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

여자보다 남자가 더 본인이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중,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는 참여하는 학생이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음

- 남녀의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의 건강 및 체력에 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체육활동의 참여하는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30】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단위: Likert 7점 척도)

표 Ⅲ-32 건강 및 체력에 대한 인식(단위: Likert 7점 척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건강			체력			
		평균	표준편차	t, F	평균	표준편차	t, F	
전체	100(1,738)	4.89	1.39		4.39	1.46		
성별	남자 ^a	100(944)	4.99	1.47	3.296** (a)b	4.57	1.53	5.872** (a)b
	여자 ^b	100(794)	4.77	1.27		4.17	1.35	
교급 별	초등학교 ^a	100(241)	5.27	1.41	11.332** (a)b, c	4.79	1.50	11.699** (a)b, c
	중학교 ^b	100(839)	4.86	1.36		4.37	1.39	
	고등학교 ^c	100(658)	4.78	1.39		4.26	1.51	
경제 수준	저소득층 ^a	100(387)	4.87	1.43	0.287	4.43	1.47	0.665
	일반 ^b	100(1,351)	4.90	1.38		4.37	1.46	
체육 참여	비참여 ^a	100(352)	4.42	1.41	7.134** (a)b	3.66	1.40	10.656** (a)b
	참여 ^b	100(1,379)	5.00	1.36		4.56	1.42	

** α .01

(11)-2. 성장발달자산 - 외적 자산, 내적 자산

외적, 내적 자산 모두 체육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외적 자산에서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점수가 높았음

- 외적 자산의 경우 각 하위 항목들에서 체육활동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높은 성장발달자산 점수를 나타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저소득층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ie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III-34 성장발달자산 - 외적 자산, 내적 자산(단위: Likert 7점 척도)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F, p<.01
외적 자산(n=1,742)		4.36	0.86	
1	지지(Support)	4.91	1.11	초>중,고, 참여>비참여
2	역량함양의 기회(Empowerment)	4.02	1.02	남>여, 초>중,고, 참여>비참여
3	분명한 범위와 기대(Boundaries and Expectation)	4.67	0.97	남>여, 초>중,고, 참여>비참여
4	건설적인 시간활용(Constructive Use of Time)	3.54	1.66	초>중,고, 참여>비참여
내적 자산(n=1,742)		4.81	0.85	참여>비참여
1	학습열의(Commitment to Learning)	4.08	1.19	초>중,고, 참여>비참여
2	긍정적 가치관(Positive Values)	4.98	0.91	
3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ies)	4.84	0.95	남<여, 저소득층<일반
4	긍정적 정체감(Positive Identity)	5.22	1.10	참여>비참여
전체		4.60	0.78	참여>비참여

(11)-3. 성장발달자산 - 외적 자산 세부항목

표 III-35 성장발달자산 - 외적 자산 세부항목(단위: Likert 7점 척도)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지지(Support)		4.91	1.11
1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5.72	1.30
2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지지해 주신다	5.33	1.43
3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의논하고 도움을 청한다	4.74	1.70
4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	4.99	1.66
5	나를 돌봐주는 좋은 이웃이 있다	3.79	1.88
6	학교 및 학급분위기는 나에게 호의적이다	5.42	1.23
7	부모님은 학교활동에 관심이 높고 적극적이다	4.38	1.61
역량함양의 기회(Empowerment)		4.02	1.02
8	우리 동네는 우리와 같은 청소년을 소중하게 여긴다	4.02	1.47
9	나는 우리 동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5	1.54
10	나는 일주일에 한 시간이상 봉사활동을 한다	2.61	1.71
11	우리 집은 안전하고 편안하다	5.57	1.42
12	우리 학교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4.59	1.54
13	우리 동네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4.26	1.59
분명한 범위와 기대(Boundaries and Expectation)		4.67	0.97
14	우리 집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4.17	1.76
15	우리 학교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5.68	1.31
16	우리 동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해 조언하고 충고한다	3.31	1.77
17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다	5.41	1.37
18	주위 어른들은 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격려하신다	4.81	1.59
건설적인 시간활용(Constructive Use of Time)		3.54	1.66
19	일주일에 한번 창의적인(음악, 미술 등) 활동을 한다	4.19	2.06
20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67	1.68
21	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	3.29	2.39
22	나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4.00	1.72

(11)-4. 성장발달자산 - 내적 자산 세부항목

표 III-36 성장발달자산 - 내적 자산 세부항목(단위: Likert 7점 척도)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학습열의(Commitment to Learning)		4.08	1.19
23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4.25	1.61
24	나는 학교생활(동아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55	1.73
25	나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는 빼놓지 않고 다 한다	4.45	1.66
26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매우 사랑한다	3.77	1.70
27	나는 교양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	3.38	1.93
긍정적 가치관(Positive Values)		4.98	0.91
28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5.08	1.47
29	나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32	1.42
30	나는 옳다고 믿으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	5.26	1.32
31	나는 어느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47	1.44
32	나는 책임감이 있다	4.83	1.34
33	나는 음주, 흡연 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5.91	1.54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ies)		4.84	0.95
34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4.36	1.54
35	나는 친구들이 기쁘거나 슬플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한다	5.03	1.43
36	나는 친구들의 기분을 잘 헤아릴 수 있다	5.20	1.31
37	나는 친구를 잘 사귀다	5.05	1.42
38	나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잘 이해한다	4.71	1.47
39	나는 친구들의 괴임에 잘 빠지지 않는다	4.54	1.45
40	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 해결한다	4.98	1.46
긍정적 정체감(Positive Identity)		5.22	1.10
41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5.23	1.27
42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다	5.30	1.29
43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5.17	1.48
4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 받는다	4.75	1.38
45	나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5.28	1.52
46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5.61	1.46

제 4 장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제 4 장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체육활동 참여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설문조사에 비해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체육활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하여 체육활동 참여자체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경험 속에서의 체육활동의 실태, 경험 및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 면접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S수련관에서 학습지도,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을 지원 받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7명(남자 3명, 여자 4명)과 현재 K구내에서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통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7명(남자 6명, 여자 1명), 총 14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참여자 선정 방법은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채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에서 보듯이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신감, 표현력, 주의력 등 개인적 특성 요인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학생의 경우 왕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정도가 편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이하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하여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한 자기기입법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2.7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가정 경제수준에

대해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면접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번호	이름	학년	부모		학력		경제적 수준	개인적 특성	체육활동 경험특징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1	전XX	중3	○	○	대학원 졸업	대학교 졸업	3	자신감이 없음	스포츠바우처를 통해 수영프로그램 참여
2	이XX	중2	X	○	X	대학교 졸업	3	내성적인 성격	스포츠바우처를 통해 헬스프로그램 참여
3	박XX	고3	○	○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	체육활동을 좋아하지 않음, 게임을 좋아함	학교체육 수업 이외에 체육활동 참여하고 있지 않음
4	박XX	고1	○	○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	말라보이고 내성적인 성격	친구들과 농구를 즐김
5	정XX	중2	X	○	X	고등학교 졸업	2	내성적인 성격 자신감이 없음	스포츠바우처를 통해 농구프로그램 참여
6	정XX	초5	X	○	X	고등학교 졸업	2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음	스포츠바우처를 통해 인라인프로그램 참여
7	김XX	고3	○	X	고등학교 졸업	X	2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음. 복지관 생활을 함	스포츠바우처를 통해 헬스프로그램 참여 격투기 같은 체육활동 경험
8	이XX	초5	X	○	X	모름	3	부모님이 이혼하여 상실감이 큼	학교 체육활동 외 경험 없음
9	강XX	중2	○	X	중학교 졸업 이하	X	3	내성적인 성격임. 주의력 낮음	학교 체육활동 외 경험 없음
10	김XX	초4	○	○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3	내성적인 성격. 비활동적임	학교 체육활동 외 경험 없음, 체육활동에 관심이 없음
11	이XX	중3	X	○	X	대학교 졸업	4	자기표현력이 부족함	수련관에서 운영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12	김XX	중2	○	○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4	내성적이며 자기표현이 약함	수련관에서 운영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번호	이름	학년	부모		학력		경제적 수준	개인적 특성	체육활동 경험특징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13	강XX	초5	0	X	중학교 졸업 이하	X	2	활발하며 한곳에 오래 집중하지 못함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 등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함
14	정XX	중2	0	0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3	차분한 성격이며 말수가 적음	학교 체육활동 외 경험 없음 체육활동을 좋아하지 않음

2) 면담내용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생활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육활동 참여 실태, 경험 및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IV-2 심층면접 항목 및 범위

면접 항목	면접 내용
개인적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본인 및 가족)
체육활동 참여 경험	- 본인 및 가족의 체육참여 실태와 관련된 내용(종목, 빈도, 장소, 간접참여 경험 등) - 체육활동 참여 제약 요인 - 체육활동 경험의 전개(시작, 지속, 중단) - 지역사회생활 체육활동 경험 - 체육활동의 의미

3) 자료수집

심층면접의 자료수집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초·중·고 저소득층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항목 및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에 준하여 반구조화면접(semi-structured) 방법을 이용하였다. 면담 전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 배경 및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동참할 것을 동의 받은 후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존중하여 편한 장소에서 직접 면담 대상자를 만나 실시하였고,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집중도와 피로도를 고려하여 30~50분 사이로 설정하였으며, 긴급적이면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자는 면접 직후 면접노트를 작성하였다. 면접노트에는 면접 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도출된 아이디어나 주제, 면접자료 관련 특기사항, 면접 시 겪었던 애로점과 해결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자료를 수집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모든 면접기록이 이뤄질 때마다 기록이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과 장소, 그리고 면접 환경의 분위기, 면접 참여자의 전반적인 인상을 기록 하였으며, 면담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로 모든 내용을 녹취하였다.

4) 자료분석

심층면담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 작업을 통해 기록지에 옮겨 적은 후 녹취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재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사된 자료는 주제별로 몇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완성된 자료는 연구자 및 공동연구자가 여러 차례 나누어 읽고 조사 목적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2. 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체육활동 참여실태 그리고 참여경험 및 의미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체육활동 참여 실태

(1) 체육활동 참여도 및 관심 저조

면접 참여자의 체육활동 참여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대상 14명 중 5명은 ‘학교체육 외 체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명은 ‘체육활동에 관심이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한다’거나 ‘친구들과 체육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게임 등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응답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도 및 관심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신 방과 후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접 참여자들의 부모는 가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접 참여자 14명 중 8명이 편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홀로 지내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들은 게임과 TV시청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체육활동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육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재미와 흥미를 체험하는 기회 또한 부족하여 게임이나 TV시청에만 흥미를 느끼게 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많이 하고 좋아해요. 확실해요.. PC방 3~4군데 있으며 학교 마치고 자리가 없어요..그 정도로 게임을 좋아 하구요.. 운동 같은 경우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만 조금하구요.. 학교 마치고 친구들과끼리 게임방 가는 것을 더 선호해요.

(중학교 3학년)

한 반에 75%는 게임하구요 25%는 체육활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안하는 날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게임방 가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체육활동 별로 안 좋아 해요. 다 게임하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축구나 농구하는 것 보다 스타크래프트나 FIFA와 같은 오락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특히 요즘 겨울에는 운동 잘 안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끼리 PC방가니깐 저도 같이 오락하러가요..

(중학교 2학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및 관심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체육활동 참여 및 관심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도출된 분석 결과는 부모의 체육활동 참여 및 관심 부족,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제약, 체육활동 동반자의 부재,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및 관심이 저조한 직·간접적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부모의 체육활동 참여 및 관심 부족

대부분의 면접 대상자 부모의 체육활동 참여와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퇴근하여 집에 오더라도 대부분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 바쁘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들이 일 때문에 매일 바쁘셔서,,, 운동 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오시면 밥 먹고 TV보고 그냥 자요.. 주말에도 일 할 때가 있어서요.. 함께 체육활동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아빠는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엄마는 일하시느라 늦게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하는 시간도 잘 없어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렵도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부모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및 관심도는 자녀의 체육활동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등 부모는 자녀가 체육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부모는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수준과 관심도는 바로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면접 조사에서 부모의 체육활동 참여 및 관심이 부족한 점은 자녀의 체육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체육활동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일 다니시니깐. 피곤하고.. 집안일 해야 되고.. 평일에는 직장 갔다 오면 TV보고 그냥 쉬세요.. 주말에도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체육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하고 TV보고 놀아요.

(중학교 2학년)

(3)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제약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 경제수준 또는 부모로부터 지원되는 체육활동 참가비용에 따른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체육활동 참여수요가 있어도 그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를 배우고 싶은데.. 스키도 비싸고.. 스키아웃도 비싸서.. 못해요.. 부모님께 사달라고 하니깐.. 아직은 힘들어서 안 된대요...

(중학교 2학년)

방과 후 활동으로 수영프로그램을 참여 했었는데... 이제는 안해요.. 그 때도 선생님이 지원 해주셔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지원을 안 해주세요.. 아빠한테 말하기도 그래서.. 그냥 안하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저소득층의 경제적 제약은 가족의 체육활동 참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의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옛날에 큰오빠랑 작은오빠는 태권도나 수영 같은 운동 맨날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깐 저는 못 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운동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운동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깐....

(초등학교 5학년)

(4) 체육활동 동반자의 부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방과 후 대부분의 또래 친구들이 학원에 가기 때문에 홀로 지내게 되며, 따라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하는 신체적 체육활동의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및 학교 밖에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안전 및 통제가 용이한 집안에서만 지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 끝나면 집에 있어요... 동생 친구들이 학원을 대부분 가니깐 학교를 마치고 나면 같이 운동할 친구들이 없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 밖에 나가면 위험할까봐.. 집에 있게 해요.. 그래서 동생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과 축구하기로 약속 했는데 몇 명 친구들이 학원가야 된다고.. 빠지면 부모님한테 혼난다고 해서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학원가면 저는 축구 못하고 집에 가서 오락해요.

(중학교 3학년)

학교마치고 같이 농구나 축구하기로 했었는데.. 친구들이 학원 가야한다고 가버려요. 아니면 축구하는 도중에 학원가는 애들도 있어요...그래서 재미없어요. 그냥 집에 와서 컴퓨터하거나 TV봐요..

(중학교 2학년)

(5) 지역사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인근지역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체육활동 참여 접근성의 취약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방과 후 복지시설에서 밤9~10시까지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가 배치된 복지시설의 경우는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복지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다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는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료 체육시설이나 스포츠 바우처 등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복지 시설의 경우 취약한 접근성 및 이용자의 편익을 느끼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일어나서 옷 입구 학교 가서 공부하구요.. 학교 끝나면 바로 수련관에 와서 다시 공부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10시쯤 되요... 그리고 씻고 TV보고 자요. 그래서 수련관에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없으며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학교 마치고 바로 공부방에 오기 때문예요..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만 참여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수업은 일주일에 1~2번이구요.. 중학생의 경우 없어요.. 그냥 쉬는 시간 체육관 가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해요.. 여자들은 잘 안하구요.

(중학교 3학년)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그리고 센터까지 멀고.. 운동하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또 시설도 낙후되고. 스포츠 바우처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빈약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주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가 없어요.. 특히 여기서 가까우면 제일 좋구요...경제적인 것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아빠가 없어서요.. 아빠의 역할과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근처 중학교에 잔디구장이 있어서 축구하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축구하는 도중에 예약한 어른들이 와서 나가라고 해서요. 그냥 나가요, 왜냐면 돈 내고 예약하기 때문예요.. 주로 어른들이 다 사용해요. 그리고 돈내고 그렇게까지 운동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2) 체육활동 참여경험 및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관심이 저조하며 이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 및 부모의 관심, 동반자 부재, 지역사회 체육자원 부족 등의 제약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의 활동참여 경험과 의미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이고 즐겁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체육활동 참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참여를 통한 즐거움과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등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마치고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특히 땀을 흘리면, 마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집안일과 학교 수업 때문에 지친 저를 달래주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 즐거워요. 같이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구요. 그냥 친구들과하고 시간을 보내면 좋아요.

(중학교 3학년)

또한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접 참여자 중 왕따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체육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왕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또래집단과 어울리며 사회성이 향상되고 대인관계가 개선되는 경험이 함양됨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금방 친해졌어요. 축구할 때 몸을 부딪히고 하니깐 서로 몰랐던 애들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잘 못 어울리는 애들도 껴달라고 하면 같이 공차고 하는 상황이 생겨서 서로 친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 순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끝나고 나면 없었던 애들도 생겨나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모르는 애들도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과 축구나 야구하면 즐거워요.. 초등학교 시절 남들보다 살이 많아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서 살을 빼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체육활동이 좋아요. 즐거워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똥똥해서 제가 놀림 받고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런닝 같은거 운동 했어요.. 친구들과 이제는 잘 어울려요.

(고등학교 1학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 경제수준으로 인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원에 다니지 못하여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게임과 TV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육활동을 통해서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며 고립감과 소외감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친구들과 체육활동으로 활동적 시간을 보내면서 TV시청과 컴퓨터 게임에만 종속되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방치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일하고 늦게 오고 형도 학교 갔다 늦게 와서 항상 집에 혼자 집에 틀어 박혔어요.. 근데 그걸 가장 안 느끼게 해준 것이 체육활동인 것 같아요, 인라인을 시작 한 뒤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은 학원이나 방과 후 활동하러 가는데 저는 항상 집에 있었어요. 부모님도 일하러 가서 늦게 오셔서 TV나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심심하고 외로웠는데. 축구하면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하면 외롭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제 5 장

결과요약 및 정책제언

1. 결과요약
2. 정책제언

제 5 장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 결과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전반적으로 저소득층과 일반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가시간에서 평일 하루 평균 15분 정도 저소득층이 일반 학생들보다 많아 운동시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 여가시간 중 게임시간은 저소득층이 하루 평균 18분 정도 많은 반면, 공부시간은 저소득층이 일반학생보다 하루 평균 15분 정도 적게 나타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부모의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서울시에서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학생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가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운동시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 체육활동 참여 이유로 ‘건강유지 및 증진’이 일반학생은 50.2%인 반면, 저소득층은 42.2%로 적었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일반학생 37.0%, 저소득층 34.3%로 적었다.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어서’와 ‘재미있어서’는 저소득층이 일반학생들보다 2~4% 정도 많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1회 체육활동 참여시간에서는 저소득층이 일반학생들보다 5분 정도 길었지만, 체육활동 참여기간에서는 일반 학생들(30.0개월)보다 저소득층(23.4개월)이 더 짧게 참여한 것도

건강유지와 체중조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활동을 하는 비율이 저소득층이 더 적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저소득층이 일반 학생들보다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반학생들은 저소득층보다 부모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육활동 비참여 이유에 대한 결과를 보면 ‘게을러서’(81.3%), ‘관심이 없어서’(54.4%), ‘운동을 싫어해서’(44.5%) 등 개인의 성향이나 관심 정도 등 내재적 요인이 주된 비참여 이유였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20.4%), ‘주위에 운동할 장소, 도구, 시설이 없어서’(17.3%), ‘돈이 없어서’(8.8%) 등 환경적 요인들은 내재적 요인에 비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사료된다.
-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은 ‘무도/격투기’(19.1%), ‘수영’(14.4%), ‘축구’(14.0%), ‘배드민턴’(12.6%) 순으로 나타나 관람 스포츠의 인기 순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생활체육으로 쉽게 참여 가능한 운동을 선호하였다. 남자의 경우 ‘축구’(22.2%), ‘무도/격투기’(19.0%), ‘야구’(12.6%), ‘배드민턴’(10.0%)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수영’(21.9%), ‘무도/격투기’(19.3%), ‘배드민턴’(15.7%), ‘테니스’(13.6%)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확연히 다른 선호도를 보여 성별에 따른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운동경기 관람에 대해서 71.0%가 최근 1년간 한 번도 직접 운동경기를 관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저학년일수록 관람 횟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운동경기 관람 시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비율은 일반학생보다 저소득층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동반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건강 및 체력에 관한 인식을 보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건강 및 체력에 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운동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장발달자산 점수가 비참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체육활동 참여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심층면접 결과요약

-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체육활동 참여도와 관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체육활동 참여도와 관심도가 저조한 점이 상당부분 제약요인 기여하는데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절대적 여가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한 부담과 압박으로 채워져 있어 자녀의 교육, 여가 및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에도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체육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부모나 또래 친구)가 부재한 점도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면접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나 동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나 TV보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가 부재한 점 또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목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체육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또한 저조한 데 그 두드러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 및 복지관에서도 체육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체육활동의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포츠바우처 제도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제공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은 체육활동 참여라는 기본적 권리가 지원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참여 경험 또한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은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서 체력 증진 및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집단과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관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외향적이며 협동적인 성격으로 변하거나 혼자서 보내는 시간에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체육기반 조성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는 지역사회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역사회 체육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물적, 인적, 문화적)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체육자원을 파악하고 그러한 자원의 네트워킹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바우처 사업,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체육 조직 및 단체들의 주체적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 지역 체육단체 및 조직(시도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시도지부 등), 지역사회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지역사회 대학 체육학과 및 연구소 등 지역사회 체육의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사회 체육인프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지역의 가용한 체육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개선 및 확대 시행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실시가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바우처 시설 유형의 다양화, 아동 및 청소년 성별 활용도 제고, 지역적 편중 개선,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스포츠바우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홍보매체 및 채널을(예를 들어 학교, 인터넷, 지자체 기관 등) 통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학생들보다는 직접 사업신청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

3)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체육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이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체육시설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 또는 민간 체육시설 장소, 요금안내, 예약 서비스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대부분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또래 친구들의 학원에 가기 때문에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따라서 같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반자가 부재한 제약요인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또래 아동·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방과 후 대부분 혼자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조직화하고 그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지도자를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전술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강구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관리, 자원연계 등의 역할을 해주는 멘토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은 ‘건강유지’나 ‘체중조절’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보다 적은 반면, ‘달리 할 일이 없어서’와 ‘재미있어서’ 운동을 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이 일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많이 나타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멘토와 같은 동반자를 배치하여 체육활동의 의미, 내용과 방법, 목표 등에 대해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를 두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6) 아동·청소년기 체육활동 중요성 인식제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체육활동 참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또한 저조하기 때문에 체육의 중요성과 체육활동 참여의 즐거움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물론 전체 아동 및 청소년 모두에게 절실하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소득층 자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물론 의료비 지출의 감소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식 교육, 즉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 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전문적인 홍보단체와의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청소년수련관 및 복지관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사회 복지관 또는 청소년 수련관의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수련관 및 복지관의 체육프로그램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기반하여 활용도 높은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그를 담당하는 지도인력의 육성 및 배치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8)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체육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 필요

소외계층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의 특정 계층에 치우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서울시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실태를 전국 단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효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학술적, 정책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의 실태조사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계획(안).
- 김남수, 이기봉, 박일혁(2010).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과제 보고서.
- 김선희, 허현미(2008).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 347-364.
- 김진환, 김영식(2003). 우리나라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운영적 추진 정책.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 317-332.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 손천택, 성장훈, 김민철(2006). 중등 체육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방안-환경 분석 및 평가 모형 개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1), 47-65.
- 안민석(2008). 학교체육 선진화, 요원한가?. 2008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이경상, 이종원, 백혜정(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예정.
- 전병재(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찬우(2010). 청소년이 지각한 발달자산, 내외통제성, 스트레스대처방식과 스트레스의 관계 및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현미, 김선희(200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개선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7(5), 119-132.
- Benson, P.L. (2003).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building community: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s. In R.M. Lerner and P.L. Benson (Eds.),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building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p. 19–43). Norwell, MA: Kluwer Academic.
- Eccles, J.S., Barber, B.L., Stone, M., & Hunt, J. (2003).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59*(4), 865–890.
- Fraser–Thomas, J. L., Côté, J. & Deakin, J. (2005). Youth sport programs: an avenue to foster positive youth developmen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0*(1), 19–40.
- Holt, N .L. (2008).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London: Routledge.
- King, P.E., Schultz, W., Muller, R.A., Dowling, E.M., Osborn, O., Dickerson, E., et al. (2005). Positive youth development: Is there a nomological network of concepts used in the adolescent development literatur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9*, 216–228.
- Larson, R.W. (2000). Toward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5*(1), 170–183.
- Lerner, R.M., Lerner, J.V., Almerigi, J.B., Theokas, C., Phelps, E., Naudeau, S., et al. (2005). Positive youth developm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community contributions of fifth–grade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first wave of the 4–H stud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 17–71.
- Palen, L, & Coatsworth J.D. (2007). Activity–based identity experiences and their relation to problem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0*, 721–737.
- Passmore, A., & French, D. (2001).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of a measure to assess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dolescence*, *36* (141), 67–75.
- Pittman, K., Irby, M., Tolman, J., Yohalem, N., & Ferber, T. (2003). *Preventing Problems, Promoting Development, Encouraging Engage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Based upon Pittman, K. & Irby, M. (1996). *Preventing Problems or Promoting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Impact Strategies, Inc. Available online at

www.forumfyi.org.

Roth, J. (2000, March).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bout youth development programs*. Paper presented at the bi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Chicago, IL.



부 록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2011 청소년 체육참여 실태조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의 운동, 스포츠, 체육활동 및 여가시간(노는 시간)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 11.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 사 문 의 처:	02-2188-8800
담당연구자:	이기봉 박사		02-880-78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대답해야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매우 자주 지각을 했기 때문에 ‘④’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답에 다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주관식 문항에 답할 때

<보기3>과 같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곳에 답을 해 주십시오. 만약 정확한 응답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생각하신 것에 가장 가까운 답을 쓰시면 됩니다.

<보기3>

나의 하루 평균 공부시간은? 3 시간 30 분

여가 및 체육활동 여건

1. 하루 중 여가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모두 기록하세요.

(하루 중 먹고, 자고, 수업하고, 공부하고, 등·하교하는 등의 시간을 제외한 시간)

가. 평 일 하루에 _____시간 _____분

나. 휴 일 하루에 _____시간 _____분

2. 학교 수업 외의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보내십니까? 해당되는 활동 내용과 시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게임시간	하루평균 _____시간 _____분
공부시간(학원 포함)	하루평균 _____시간 _____분
운동시간	하루평균 _____시간 _____분
기타1(적어주세요:)	하루평균 _____시간 _____분
기타2(적어주세요:)	하루평균 _____시간 _____분

3. 집 주변(걸어서 10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운동)시설이 있습니까?(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코트, 산책로 등)

① 있다 (약 _____개)

② 없다

체육활동 참여 행태

4. 요즘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운동은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함. 등하교 등 일상생활의 걷기는 제외하며, 산책 등 운동 목적의 걷기는 포함됨, 학교 체육수업은 제외, 운동 횟수는 1일 1회 기준임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질문11로 가시오)

② 한달에 2~3번 이하

③ 일주일에 1~2번

④ 일주일에 3~4번

⑤ 일주일에 5~6번

⑥ 매일

5. 평소에 주로 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해 주세요. (학교 체육시간 제외)

⇒ 2-3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다중응답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듯

- | | | |
|------------------------------------|--------|-------|
| ① 축구 | ② 농구 | ③ 야구 |
| ④ 수영 | ⑤ 달리기 | ⑥ 걷기 |
| ⑦ 줄넘기 | ⑧ 배드민턴 | ⑨ 테니스 |
| ⑩ 무도/격투기(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이종격투기 등) | | |
| ⑪ 배구 | ⑫ 골프 | |
| ⑬ 기타(_____) | | |

5-1. 위에서 답한 운동을 1회 평균 얼마나 오래 합니까?

_____ 시간 _____ 분

5-2. 위에서 답한 운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습니까?(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_____ 년 _____ 개월

5-3.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로 힘들게 하십니까?

- ① 별로 힘들지 않게(저강도): 운동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약하게
- ② 조금 힘들게(중강도): 운동하면서 대화가 가능하지만 약간 힘든 정도
- ③ 많이 힘들게(고강도): 운동하면서 힘들고 숨이 차서 대화하기 어려운 정도

6. 주로 무슨 요일에 운동을 하십니까? (학교 체육시간 제외, 해당하는 요일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평일 ② 토요일 ③ 일요일/휴일

7. 주로 어느 시간대에 운동을 하십니까? (학교 체육시간 제외)

- | | | |
|-----------------|-------------------|-----------|
| ① 아침(새벽시간 포함) | ② 오전 | ③ 점심시간 |
| ④ 오후 (오후 1시~6시) | ⑤ 저녁(저녁 6시~밤늦게까지) | ⑥ 일정하지 않음 |

8. 운동은 왜 하십니까? (학교 체육시간 제외,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달리 할 일이 없어서 | ② 건강유지 및 증진 | ③ 살을 빼기 위해서 |
| ④ 스트레스 해소 | ⑤ 친구를 사귀기 위해 | ⑥ 재미 있어서 |
| ⑦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 ⑧ 기타(_____) | |

15. 학교 체육시간 외 귀하의 운동 참여 의지와 현재 참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귀하의 운동 참여 상황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 ① 운동을 하고 싶고, 현재 참여하고 있다 (⇒ 질문15-1로 가시오)
- ② 운동을 하고 싶지만,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 (⇒ 질문16으로 가시오)
- ③ 운동을 하고 싶지 않고 현재 하지 않고 있다 (⇒ 질문16으로 가시오)
- ④ 운동을 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 참여하고 있다 (⇒ 질문16으로 가시오)

15-1. 학교 체육시간 외 운동 참여 시 부족한 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참여 효과

16. 현재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명

17. 친한 친구들과 같이 학교 체육시간 외에 운동을 일주일에 몇 회 하십니까? () 회

18. 다음은 교우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친구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 친구들과 진정한 한 가족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반적으로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다음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부모님들과 진정한 한 가족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부모님들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반적으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다음은 운동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운동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에게 운동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은 배려와 이타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22. 나는 남을 배려하여 행동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보통 수준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	보통 이다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는 사는데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현재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_____cm 몸무게: _____kg

25. 현재 나이에서 원하는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키: _____cm 몸무게: _____kg

26. 나의 건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보통이다 —————→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의 체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체력이 나쁘다		←————— 보통이다 —————→					매우 체력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다음은 나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항상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고 지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의논하고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어른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를 돌봐주는 좋은 이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학교 및 학급분위기는 나에게 호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부모님은 학교활동에 관심이 높고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우리 동네는 우리와 같은 청소년을 소중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우리 동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일주일에 한 시간이상 봉사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우리 집은 안전하고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우리 학교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우리 동네는 안전하고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우리 집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우리 학교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우리 동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해 조언하고 충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주위 어른들은 나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격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일주일에 한번 창의적인(음악, 미술 등)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나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학교생활(동아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는 빼놓지 않고 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매우 사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나는 교양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나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항상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나는 옳다고 믿으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나는 어느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책임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는 음주, 흡연 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나는 친구들이 기쁘거나 슬플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나는 친구들의 기분을 잘 헤아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7) 나는 친구를 잘 사귀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나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나는 친구들의 괴임에 잘 빠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0) 나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나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6)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사항

※ 다음은 설문에 응하시는 학생 본인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에 적당한 응답을 기입하거나, 해당 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

- ① 남자 ② 여자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직장·학교에 다니는 등의 이유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기타 친척 ⑦ 기타 _____ ⑧ 없음

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전문대졸 포함)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2) 어머니	①	②	③	④

4. 부모님께서서는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구분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5. 학급에서 학업성적(2011년 1학기)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낮다	← 보통이다 →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매우 못 산다	← 보통이다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살면 ①에, 그 외 지역에 살면 ②에 써 주세요)

① ()시 ()구 ()동

② ()도 ()시 ()구 ()동/읍/면

8. 학년, 반, 번호는 무엇입니까?

()학년 ()반 ()번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운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운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소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남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백영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서금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우형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임선정 중구청소년수련관 팀장

연구보고 11-R19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인 쇄 2011년 12월 29일

발 행 2011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리 드 릭 전화 02)2269-191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94-3(93330)